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장 창 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도 김 성 우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2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장 창 민

장창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26 6 9 

심사위원 이상호 

심사위원 이승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0년 12월 일

차 례

표 차례	iii
그림 차례	v
국문요약	viii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3 용어의 정리	4

제2장 제주도 주택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

2.1 제주의 사회적 변화	6
2.2 제주도 건축의 사례분석	11
2.3 이론적 고찰	16

제3장 제주민가의 건축 특성 및 설계 요소 분석

3.1 배치 특성 및 설계 요소	18
3.1.1 외부공간의 배치	18
3.1.2 건물의 배치	22
3.2 평면 구성의 특성 및 설계 요소	28
3.2.1 평면구성의 특성	28
3.2.2 평면구성의 설계요소	29
3.3 실 단위별 특성 및 설계 요소	33
3.3.1 중심공간	33
3.3.2 보조공간	39

3.4 건축의장 특성 및 설계 요소	44
3.4.1 지붕	44
3.4.2 입면	46
3.4.3 재료	48

제4장 특성 요소의 조합 가능성

4.1 건물 배치 가능성	50
4.1.1 배치 특성의 적용 가능성	50
4.1.2 현대 건물의 배치	54
4.2 평면 구성 요소의 조합 가능성	58
4.2.1 평면 특성의 적용 가능성	58
4.2.2 평면구성	59
4.3 실 단위별 특성 요소의 조합 가능성	61
4.3.1 실 단위별 특성의 특성 가능성	61
4.3.2 실 구성	65
4.4 건축 의장의 조합 가능성	70
4.4.1 지붕	70
4.4.2 입면	73

제5장 요소 조합을 이용한 평면 계획

5.1 외거리형 평면 계획	78
5.2 두거리형 평면 계획	79

제6장 결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1

표 차 례

[표 1-1] 연구 흐름도	3
[표 2-1] 전통 및 지역성 적용 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16
[표 3-1] 건물 배치의 특성 및 문제점	25
[표 3-2] 건물 연결 방법	27
[표 3-3] 기타 배치의 특성 요소	27
[표 3-4] 제주민가의 이중외피 구조	30
[표 3-5] 이중외피 구조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30
[표 3-6] 제주민가의 평면 배치 방법	32
[표 3-7] 제주민가 평면의 특성 요소	33
[표 3-8] 구들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35
[표 3-9] 상방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37
[표 3-10] 제주 건축의 지붕	46
[표 4-1] 별동형 배치 특성의 적용 가능성	51
[표 4-2] 마당 구심적 공간 형성 방법	52
[표 4-3] 二형(마주앉은) 배치	53
[표 4-4] 건물 배치 방법	55
[표 4-5] 건물 연결 방법	56
[표 4-6] 1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56
[표 4-7] 2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57
[표 4-8] 부부 주거공간의 평면구성	59
[표 4-9] 평면 배치 가능성	60
[표 4-10]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부부 주거공간의 평면구성	60
[표 4-11] 평면 배치 가능성	61
[표 4-12] 중마루의 적용 가능성	62

[표 4-13] 고랑캐의 적용 가능성	63
[표 4-14] 장방의 적용 가능성	63
[표 4-15] 굴뚝의 적용 가능성	64
[표 4-16] 안방의 구성요소	65
[표 4-17] 안방 구성의 조합 가능성	66
[표 4-18] 거실의 구성요소	68
[표 4-19] 부엌의 구성요소	68
[표 4-20] 지붕의 적용 가능성	70
[표 4-21] 처마의 적용 가능성	70
[표 4-22] 재료의 적용 가능성	71
[표 4-23] 입면의 적용 가능성	74
[표 4-24] 제주석 재료의 적용 가능성	75
[표 4-25] 목재 재료의 적용 가능성	76
[표 5-1] 평형에 따른 1세대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78
[표 5-2] 평형에 따른 2세대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80
[표 5-3] 2세대 二형 배치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81
[표 5-4] 방 적용의 대안	82
[표 5-5] 기타 요소의 대안	83

그 림 차 례

[그림 2-1] 제주도 사용방수별 가구	8
[그림 2-2] 제주 단독주택(연건평별주택)수	8
[그림 2-3] 제주도 가구원수별 가구 수	10
[그림 2-4] 노인복지회관	11
[그림 2-5] 노인복지회관 연결부	11
[그림 2-6] 보건진료소	12
[그림 2-7] 하나로마트	12
[그림 2-8] 블랙스톤 마리나클럽	13
[그림 2-9] 신촌주택	13
[그림 2-10] 신촌주택 마당	13
[그림 2-11] 아라동 단독주택	14
[그림 2-12] S씨주택 마당	14
[그림 2-13] 외도1동 S씨 주택	14
[그림 2-14] 이타미준 K빌라	15
[그림 3-1] 제주 전통주거의 구성	18
[그림 3-2] 올래 진입 형태	19
[그림 3-3] 올래 담장 형태	19
[그림 3-4] 마당공간	20
[그림 3-5] 마당 어楯돌	20
[그림 3-6] 안뒤	20
[그림 3-7] 놀굽	21
[그림 3-8] 우영	21
[그림 3-9] 통시	21
[그림 3-10] 외거리 집	22

[그림 3-11] 마주앉은 형	23
[그림 3-12] 모로앉은 형	23
[그림 3-13] 마주앉은 형	23
[그림 3-14] 모로앉은 형	24
[그림 3-15] 네거리집	24
[그림 3-16] 제주 민가건축의 평면유형	28
[그림 3-17] 구들	34
[그림 3-18] 중마루	35
[그림 3-19] 상방	36
[그림 3-20] 상방과 구들	38
[그림 3-21] 정지	38
[그림 3-22] 정지현관	39
[그림 3-23] 고팽	40
[그림 3-24] 굴목	41
[그림 3-25] 굴목의 수납	41
[그림 3-26] 챗방	42
[그림 3-27] 낭간	42
[그림 3-28] 낭간 평면도	42
[그림 3-29] 장방	43
[그림 3-30] 지붕	44
[그림 3-31] 제주민가의 입면	46
[그림 3-32] 석벽의 형태	47
[그림 4-1] 이중외피 구조	58
[그림 4-2] 평면형태	58
[그림 4-3] 평면구성	59
[그림 4-4] 전설 적용 이미지	66
[그림 4-5] 이중외피 적용 이미지	67

[그림 4-6] 전설 적용 이미지	70
[그림 4-7] 민가 입면의 구성	73
[그림 4-8] 입면 적용의 예시	77
[그림 5-1] 안방 조합의 사례	84

국 문 요 약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는 위치상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지정학·인문 사회학적으로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이후 제주의 주택은 육지의 주택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화로 인해 현재 주택으로서 거의 자리를 잃은 지 오래된 제주 민가를 재해석하여 현대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즉 제주민가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 특성 중 현대 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각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현대 주택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서 근대화로 인해 잃어버렸던 제주의 고유한 지역성을 품고 있는 제주형 현대주택 계획의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유형으로 일반화하기 보다는 어떻게 현대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건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태도이다.

지역과 사회의 독특한 전통성을 반영하여 현대 건축에 표현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건축 디자인 방법으로서 전통성은 이미 하나의 건축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반영은 전통건축을 현대건축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축가에 의한 해석에 의해 각각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해석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전통건축이 가지는 개념의 해석 보다는 배치, 평면, 실 단위, 의장 요소라는 물리적 측면의 해석을 통해 설명해 보려 한다.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민가는 디자인적인 측면보다는 기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은 건축물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기술로는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의 극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구성된 제주 민가를 현대주택 계획에 이용할 때 전통적 공간이 현대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각각의 제주민가의 전통공간을 현대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 가능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제시하고 요소화 시킨다.

이러한 배치, 평면 구성, 실 단위별, 의장의 특성 분석을 통해 나온 요소를 현대 주택의 설계에 현대주택에 필요한 부분만을 디자인 요소로 조합하여 사용함으로서 민가의 전통성을 반영한 현대 주택을 설계하는 것이다.

전통을 반영한 주택의 설계의 타당성은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민가를 현대주택 계획에 이용할 때 전통적 공간이 현대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가능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축은 같은 건축이라 할지라도 사회 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해 활용 가능성이 다르게 평가되어질 것이기에 설계요소를 객관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통 민가에서 현대건축에 적용 가능한 설계요소들은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할 것이며 실재 건축물에 반영하여 사용해봄으로서 설계 요소의 타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제주, 민가, 주택, 요소, 조합, 설계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위치상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독특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지정학·인문 사회학적으로 육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은 인간의 삶이 반영된 물리적 공간으로 그 지역의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적 요인까지 반영되어 그 형태가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도의 건축은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건축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근대화로 인해 제주도의 현대 건축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육지에서는 한옥을 복원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를 재조명해 봄으로서 보다 나은 한국 건축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의 새로운 시도라 보인다.

제주도 역시 육지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제주의 환경, 생활문화가 반영된 제주민가라는 독특한 주거 양식이 존재한다. 아직까지도 현재 농어촌 지역은 민가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제주 민가가 현대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의 제주 주택 설계에 있어서 고려해볼 문제이다.

본 연구는 제주 민가를 단순히 하나의 전통 주택으로 보존해야 될 유물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민가의 특성을 각 분류별로 요소화 하여 현대 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건축 요소로 제안을 하고 제주 현대 건축 특징으로 보편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편화 작업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주주택이 아닌 일반 현대주택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 민가 특성을 보편화 하는 방법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보편화 단계의 기초연구로서 어떠한 유형으로 일반화하기 보

다는 어떻게 현대 건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건축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태도이다.

제주인의 생활문화가 반영되어 있는 의미 있는 제주민가의 특성과 설계요소들이 현대 주택에 활용가능하게 된다면 수요에 따라 각 요소들의 조합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성 있는 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 요소들로 구성된 주택에서 제주 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앞에서 말했듯이 본 연구는 제주 민가를 주거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민가의 특성을 각 분류별로 요소화 하여 현대 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건축 요소로 제안을 하고 제주 현대 건축 특징으로 보편화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설계안 자체를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에서 현대 주택에 활용 가능한 요소 찾아서 어떻게 조합이 가능할 지에 대해 제안하는데 까지 있다.

지역과 사회의 독특한 전통성을 반영하여 현대 건축에 표현하려는 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건축 디자인 방법으로서 전통성은 이미 하나의 건축 요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성의 반영은 전통건축을 현대건축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석의 방법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어진다.

이와 같이 전통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해석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전통건축이 가지는 개념의 해석 보다는 배치, 평면, 실 단위, 의장 요소라는 물리적 측면의 특성 해석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건축의 특성을 배치, 평면, 실 단위, 의장으로 범위로 한정하여 각각의 특성에서 요소를 추출하고 그 요소가 어떻게 조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 민가를 현대 주택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표 1-1]의 연구 흐름도의 순서로 접근한다.

[표 1-1] 연구 흐름도



제주도 민가에서 보이는 주택의 특성 중 현대 생활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요소화하여 그 현대적 적용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현대 제주의 건축현황과 현대 건축에 전통성의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제주의 사회적 변화에 따른 현대 주택의 현황을 살피고 현대 주택의 사례를 분석하여 현대 주택의 요구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민가 특성 분석 및 설계 요소화 작업에서는 민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을 요소화 한다. 제주 민가의 배치의 경우는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되는지 살펴 요소화 한다. 평면은 제주 민가의 대표적인 평면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평면이 구성되는 지에 대한 특성을 찾아서 요소화 한다. 실 단위 요소화에서는 제주 민가에서는 하나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었으나 현대 건축에서 사라져 버린 공간을 다시 어떻게 재해석하여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특성 분석을 통해 요소화 한다. 의장인 경우는 전통적인 지붕, 재료를 현대 그대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성을 반영한 현대 건축에서 그 방법을 찾는다. 설계 요소의 적용 및 조합 가능성은 앞에서 찾은 요소를 가지고 현대 주택에 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을지 방법을 찾는 것이다. 요소 조합 사례에서는 앞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의 평면을 계획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1.3 용어의 정리

제주어는 제주도 생활문화가 반영된 고유의 언어로 결국 제주어에 대한 이해는 제주의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제주 민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주 민가를 구성하는 어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요구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제주 민가 용어들을 공간별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배치

안거리	안채. ‘거리’는 ‘채’에 해당하는 말로 집 채의 수를 세는 단위이다.
밖거리	밧거리로 표기하기도 하며, 바깥채(육지의 사랑채와는 성격이 다름)이다.
목거리	모커리로 표기하기도 하며, 안채나 바깥채에 대하여 모로 배치된 곁채.
안팎거리	안팎거리로 표기하기도 하며,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거리(안채)와 밖거리(바깥채)를 말함.
외거리	웨거리로 표기하기도 하며, 건물(살림채) 한 채로만 구성된 집.
두거리	3칸 또는 4칸집을 안거리로 하고, 이보다 작거나 같은 규모로 밖거리로 하여 마당을 중심으로 틈구자(모로 앉은 두거리집), 二자(마주 앉은 두거리집) 형태로 배치한 집.
세거리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모커리)로 배치가 이루어진 집.
네거리	안거리와 밖거리가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 앉아 있고 그 좌우로 목거리나 정지거리(별동정지)가 배치되어 틈구자 형태로 배치된 집.
이문거리	이문간이라고도 한다. 집의 입구에 한 칸은 대문이 달려 있고, 그 좌우에 주거시설이나 축사가 있는 여러 칸으로 된 대문간(문간채).

□ 외부공간

우영	일부 지역에서는 우연, 위연이라고 부른다. 울타리 안에 있는 터얕(텃밭)으로 채소 따위를 갈아 먹는 공지.
안뒤	안튀라고 부르기도 하며, 안거리(안채)의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텃밭이다.
통시	돼지우리 즉, 변소. 뜬통, 뜬통시, 통지(어도리)라고도 부른다.

눌굽	털곡하기 전의 농작물이나 털곡 후의 짚을 쌓아두는 40~50cm 정도 높이의 돌로 만든 단.
-----------	---

□ 평면

큰구들	안방
족은구들	안구들, 정짓구들이라고도 한다. 작은방
상방	삼방, 마리라고도 부르며, 마루(대청)을 일컫는다.
정지	부엌. 정재라고 부르는 지역도 있다.
고팡	큰구들 뒤에 접하여 배치되며, 젓갈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과 곡류를 보관하는 공간.
굴록	굴목이라고도 부르며, 큰구들의 불을 때는 공간.
낭간	난간 또는 뒷마루
장방	앞퇴의 모퇴나 마루 뒤퇴의 양귀에 만들어지는 불박이장.
챗방	상방과 정지 사이에 시설된 마루공간으로서 전형적인 식사공간.
고랑캐	고랑캐라고도 부르며, 정지 바깥벽과 앞벽이 이루는 구석에 연료저장 창고로 쓰이는 공간.

이상에서 본 논문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제주 민가 용어들을 정리하였고, 이후 논문에의 표기는 어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제주 고유문화를 표현하고자 제주어를 사용하여 표시도록 하겠다.

제2장 제주도 주택의 현황

2.1 제주의 사회적 변화

2.1.1 제주의 전통사회와 주거문화

제주는 역사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탐라국으로 등장하여 고려의 행정구역으로 편입(1105년)된 후로 현재까지 한반도 문화권에 속해 있다. 하지만 지리, 기후적 특성상 독특한 사회, 문화적 특징을 유지, 발전시켜온 지역이다.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삼다(三多)이다. 돌, 바람, 여자가 많다는 지역적 특성은 제주의 사회적 특성과 그에 따른 주거문화의 배경이기도 하다.

화산섬인 제주도는 돌이 많아 토양이 척박하다. 그로인해 돌덩이를 치워 밭을 개간하고 포구를 만들고 성담을 쌓는 과정을 통해 제주를 개척해 왔다. 자연히 쉽게 얻을 수 있는 돌이 제주민가건축의 중요한 재료로 사용 되었다.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위치적 특성상 제주인은 바람과 바다와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영향은 제주의 생활모습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돌 울타리를 쌓고, 건물은 낮게 지어졌으며, 지붕은 새(띠풀)로 얹어메 바람에 저항하였다.

제주에 상대적으로 여자가 많은 것은 남자들이 바다에 나가 어로작업 중 많이 조난, 사망한데 연유한다. 그러나 그보다 제주의 척박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남자들과 함께 여자들이 일터로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었던 이유가 더 크다.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생활고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데서 붙여진 말이다. 이러한 제주여성의 생활력은 제주가 한반도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는 배경이 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주거의 공간배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제주 민가의 정지공간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타지방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제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에서 기인한 사회, 문화적 특성은 근, 현대에 들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인적, 물적 교류와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자연환경 극복으로 희석되고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특성의 희석은 주거문화에도 반

영되고 있다.

2.1.2 제주의 현대사회와 주거문화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제주전통사회를 구성하게 된 배경요인들이 약화되거나 파괴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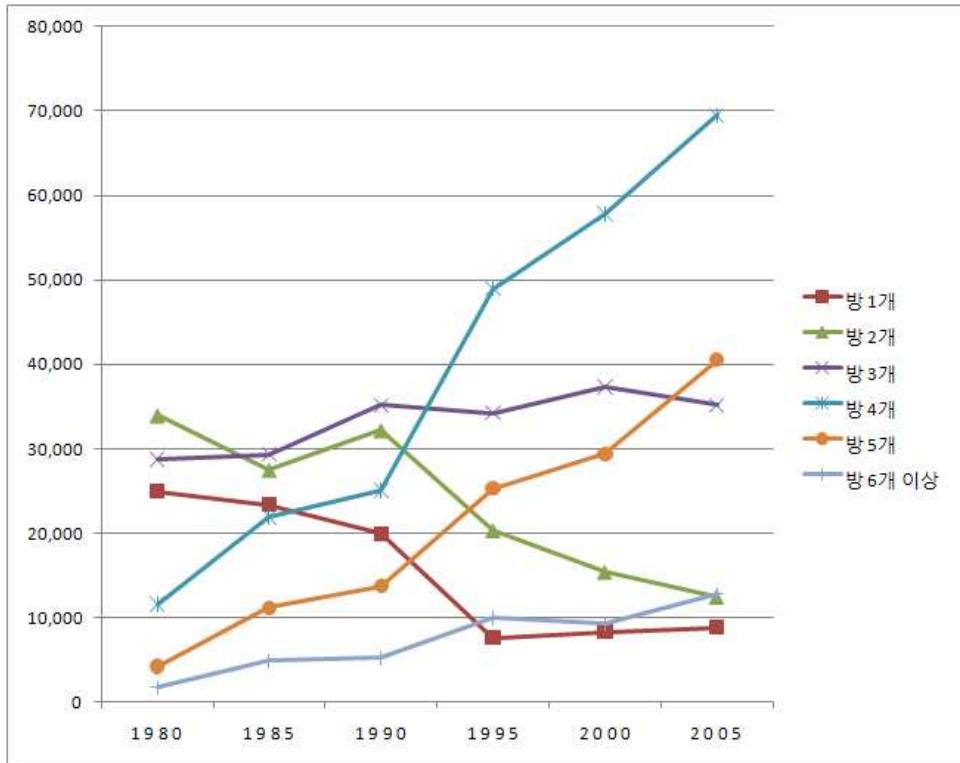
화산섬이라는 척박한 환경조건과 한반도 최남단의 섬이라는 지형, 위치적으로 불리한 조건은 교통의 발달로 농,수산업 중심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의 지역산업구조 변화에 원동력이 되어 제주인의 보다 윤택한 삶의 원천이 되었다.

현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제주의 바람과 바다를 순응의 대상이 아닌 극복과 정복의 대상으로 변화 시켰다. 일기예보를 통해 태풍과 기상을 예측, 대비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보다 발달한 건축자재와 구조, 시공기술은 기상환경의 제한조건을 뛰어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위치상 고립되고 자연, 기후적으로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며 생겨난 제주의 전통의 사회, 문화적 특성은 현대로 들어서며 발달한 정보통신, 교통, 과학의 힘으로 인해 퇴색되며 현대사회, 문화와 융합되어 점차 구분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거문화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제주주택은 현대화 과정에서 수용된 서구주거양식의 급속한 전파로 무분별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아래는 통계로 살펴본 현대 제주주택 현황이다.

1) 제주도 사용 방수별 가구

[그림 2-1]을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전통 제주민가 형식인 방1, 2개 가구 수는 급감하고, 현대화된 주택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4, 5개 가구가 전체의 61%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방 3개 가구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이나 주변 환경, 생활 형태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방의 수가 4개인 가구가 가장 선호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방3, 4개 가구도 지속적으로 유지, 증가하는 추세로 논문에서의 제주 주택설계에 있어서 방 4 개를 기준으로 하되 ±1개의 여유를 두고 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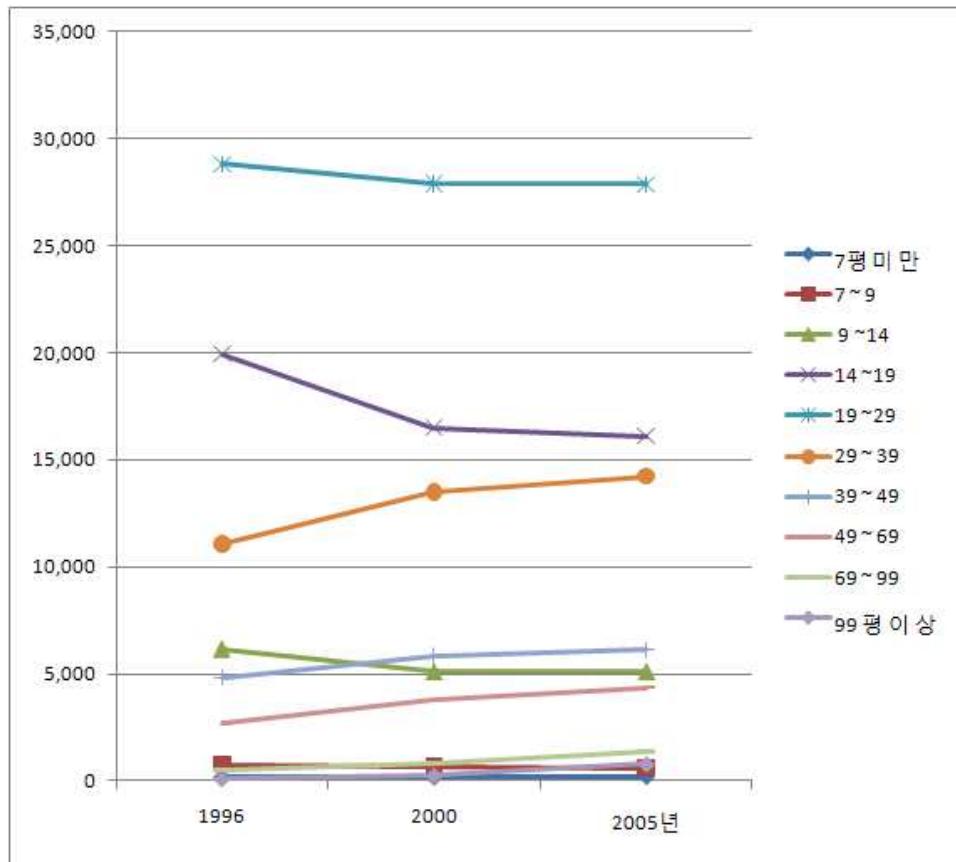


[그림 2-1] 제주도 사용방수별 가구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중>

1) 연건평별 주택

[그림 2-2]은 제주 단독주택의 연건평별 주택의 수를 그래프화 한 것으로 시대별 평형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연건평별 단독주택 수를 살펴보면 전통제주민가 형식인 19~29평형이 포함된 주택이 36.3%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 다음으로 14~19평형 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29~39평형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 19~29평형이 주택 수 유지는 기존 주택의 수가 변화가 없음은 신축이 미비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신축에 의한 주택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기존의 14~19평형 주택을 헐고 새로 29~39평형 주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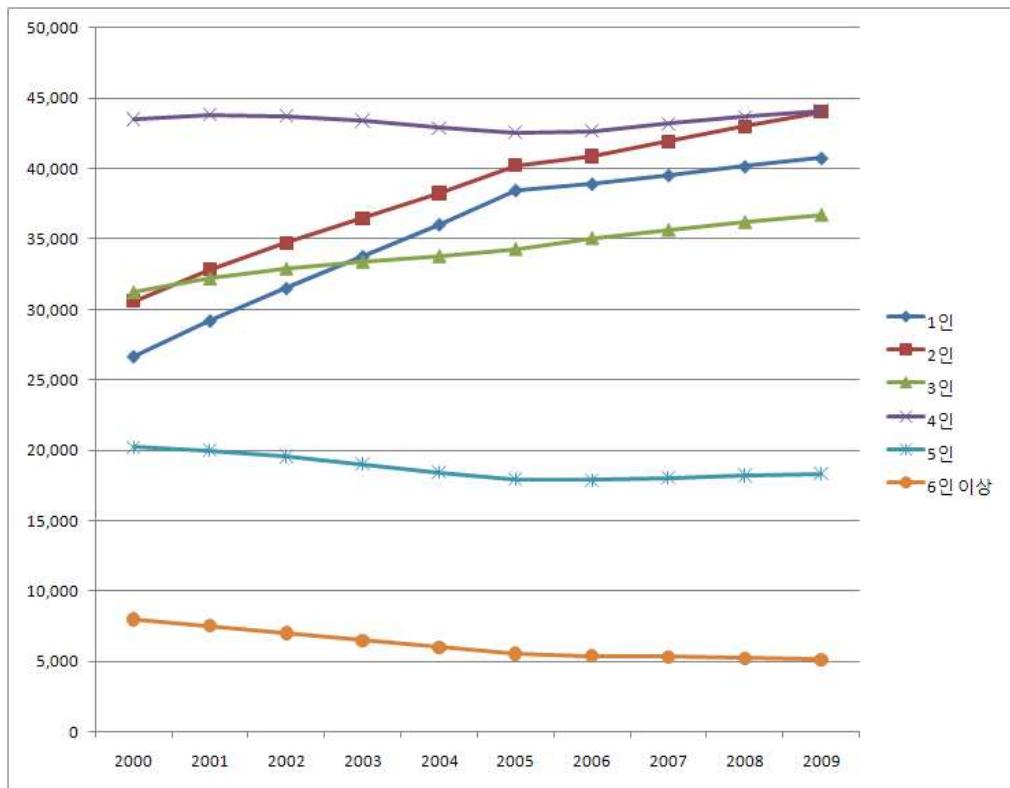
[그림 2-2] 제주 단독주택(연건평별주택)수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중>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제주도 앞으로 논문에서 다룰 제주도 주택의 평형은 29~39평형 주택이라 할 수 있겠다.

3) 가구원수별 가구 수

[그림 2-3]은 가구원수별에 따른 가구 수를 그래프화 한 것으로 시기별 가구원수별에 따른 가구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가구구성원 수인 4인가족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과 더불어 현대가족의 특성인 핵가족화와 독신에 따라 1인, 2인가구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2-3] 제주도 가구원수별 가구 수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중>

최근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통 제주주택과 비교해 현대 제주주택은 평균연면적과 사용방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력 향상과 윤택한 삶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며 전통 제주민가의 구성요소가 융합된 현대적 제주주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2.2 제주도 건축의 사례분석

현재 제주도에 시공되어 사용되어지는 건물을 토대로 전통민가의 특성에서 현대에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한다. 성읍민속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는 현대건물은 규모나 입면의 의장을 민가의 규모, 형태를 거의 직설적으로 차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 주택은 민가의 특성이 건축가의 해석에 따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① 성읍1리 노인복지회관



[그림 2-4] 노인복지회관

성읍민속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공건물로 현대식으로 시공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민속마을의 환경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형태로 지어졌다. 전통민가의 모로앉은 두거리집(ㄱ자형) 형태로 별동형으로 배치되었다. 지붕은 초가지붕의 곡선을 살려 그대로 표현해주었으며 재료는 제주의 화산송이를 사용하였다. 석벽은 건물의 모든 입면에 일정한 높이까지 균일하게 둘러쌓아서 민가가 가지는 내피와 외피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석벽 끝의 수평선과 지붕의 처마의 수평선을 강조하여 일반 민가에 비해 건물 높이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평성이 강조된 건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2-5] 노인복지회관 연결부

[그림 2-5]는 완공 후 별동형으로 시공된 건물에 건물 간에 이동이 편하도록 조립식으로 증축된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연환경에 의해 별동형태를 가져야 했던 제주 민가의 특성이 기술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극복이 가능하기에 사용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앞으로 주택 설계에

있어 별동형 배치의 특성을 살리되 사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건물 간에 연결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성읍1리 보건진료소



[그림 2-6] 보건진료소

[그림 2-6] 은 앞에서 다룬 노인복지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건물로 기본적인 입면 디자인 형태는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지붕의 형태 및 재료를 그대로 차용하여 적용하였다. 민가의 전통성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의미는 있으나 현대 주택에 그대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생략된 전통민가의 디자인 요소인 서까래와 띠줄의 패턴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주택에 디자인 요소로 적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성읍1리 하나로마트



[그림 2-7] 하나로마트

성읍민속마을내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건물로 앞에서 다룬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진료소 건물과 마찬가지로 입면의 의장요소를 직설적으로 차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석벽의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입면의 변화를 주고 있으며 기둥 또한 입면에 드러나도록 표현해주고 있다. 현대주택에 입면 구성에 있어서 석벽과 기둥의 디자인 구성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④ 한림읍 협재리 블랙스톤 마리나클럽



[그림 2-8] 블랙스톤 마리나클럽
의 위치가 바람이 강한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창호의 형태가 민가의 창호 형태와 비슷한 폭이 좁고 세로로 긴 형태의 창으로 디자인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한 현대식 리조트 건물이다. 외벽을 석재의 종류는 다르나 석 벽 마감으로 하였으며 지붕 밑 일정한 높이에서 끊어 줌으로서 수평적 요소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벽면의 외피와 내피의 이중 벽 마감 디자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다.

바람에 대한 영향으로 제주 민가의 경우 폭이 좁은 두짝문이 주로 사용된다. 리조트건물

⑤ 조천읍 신촌리 신촌주택



[그림 2-9] 신촌주택

전통민가의 안팎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건물이 서로마주보는 二자형으로 배치된 주택이다.

제주도 생활문화에 따른 분가에 의한 민가의 별동형 배치가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두 건물과 제주 돌담으로 구성된 마당이 형성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입면에서 나타나듯이 기본 3칸형 평면 구성으로 이루어 졌으며 마당 구심적 배치로 인해 민가와 마찬가지로 마당을 향에 개구부들이 주로 위치하고 건물 후면으로는 개구부를 최소화 하여 설계되었다.

지붕은 민가의 형태를 반영하여 볼트지붕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입면에서도 석벽의 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유곡선을 살린 제주석을 판붙임하였다.



[그림 2-10] 신촌주택 마당

⑥ 제주시 아라2동 단독주택



[그림 2-11] 아라동 단독주택

아라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진입부가 일반 주택과는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주도 올래의 특성을 적용한 진입부로 도로에서 주택의 마당으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한번 꺾어주면서 마당에서 주택으로 시야를 돌려주고 있으며 마당이 도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있다. 전통 민가에서 올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대 주택에 적용함에 있어 대지 상황에 따라 주차와 함께 도로에서 어떻게 마당, 주택으로 출입 가능할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⑦ 외도1동 S씨 주택



[그림 2-13] 외도1동 S씨 주택

제주시 외도 1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이다. 특히 제주도 二두자형 거리집 배치형태를 취하면서 중심공간에 마당을 만들어 주고 있으며 상부구조물을 통해 두 동을 연결해주고 있다. 대문에서 현관까지는 주택의 브리지 하부계단을 통해서 올라간다. 계단을 올라서면 막혔던 시야가 마당이 있는 곳에서 개방되어진다. 이러한 공간은 제주도 진입부의 올래공간을 수직적으로 해석한 공간으로서 전통주택의 요소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건물 전체적으로 올래에서부터 안거리, 밖거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입면은 민가의 석벽과 같이 일정한 높이까지 석벽 마감으로 되어 이중벽 마감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수평적 느낌을 표현해주고



[그림 2-12] S씨주택 마당

있다. 담장과 일부 벽면은 제주도의 자연재료 그대로 사용하였다.

⑧ 이타미준 K빌라



[그림 2-14] 이타미준 K빌라

남원읍 신흥리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다. 빌라형 게스트하우스로 3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3세대의 배치를 一자형으로 배치시키되 각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스사이에 공간을 비워두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지붕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하나의 건축물 형태로 보인다. 지붕은 박공지붕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만

각 세대마다 높낮이가 달리되어 하나의 건물이지만 또한 별동형 배치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이타미준 K빌라는 현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민가에서 보이는 안정함과 수평적이고 단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제주도 현대건축의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평면은 주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평면 형태로 설계되고 있으며 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은 주로 의장적 요소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제주석을 이용하여 입면에 민가 석벽의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건축물이 많았다. 지붕의 경우는 전통적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현대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통성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는 RC조로 곡선을 살린 초가지붕형태를 구성하고 지붕의 표면에 새가 아닌 제주 자연재료인 붉은송이를 사용하였다. 전통사회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에서도 장순분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건물의 배치시 별동형 배치가 현재에도 설계요소로 사용되고 있으나 각 건물간의 이동을 위해 통로를 만들어 주면서 편리성까지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때 별동형 배치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 통로는 건물의 스케일 또는 재료를 조절하여 본동과 구분하고 있다.

2.3 이론적 고찰

본 논문에서는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도의 현대주택 계획의 가능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에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민가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많이 고찰되었으나 제주도의 지역성을 적용한 건축에 대한 논문은 현재 많이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에 대한 논문은 대부분 근대 이후에 제주도에 나타나는 건물 사례를 중심으로 어떠한 전통성이 건축물에 반영이 되는가에 대한 사례에 관한 이론적 고찰이 대다수를 이룬다. 반면에 각각의 논문의 결론에서는 사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앞으로 전통성을 반영한 제주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표 2-1] 전통 및 지역성 적용 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	연구명	년도	비고
장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00	이화여대석론
한성원	제주도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사례에 관한 연구	2006	제주대학교석론
한동오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2007	성균관대석론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2007	연세대학교석론

본 논문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 장연진의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가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연진 씨 논문은 제주도의 기후적 특성에 따른 전통성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의장적인 관점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현재 제주민가의 특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의장의 표현 방법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으나 전통적 공간이 현대적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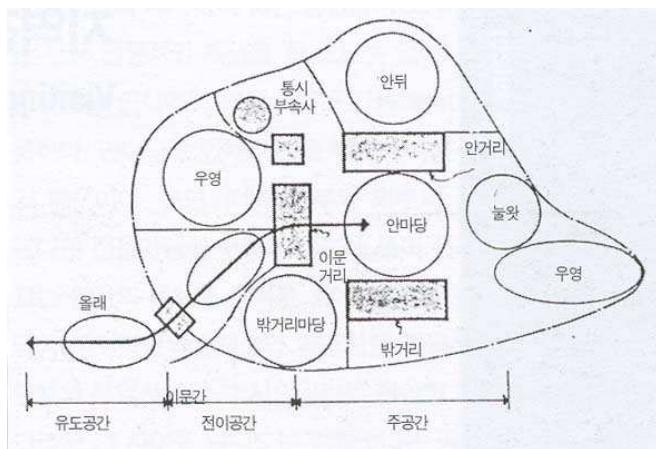
구는 미흡한 설정이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건축공간은 사회문화적 요인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은 너무 광범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주주택에 지역성에 관한 표현 방법으로 배치, 평면, 실 단위, 의장으로 건축 요소를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한 지역성 표현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제3장 민가의 건축특성 및 설계 요소 분석

3.1 배치 특성 및 설계 요소

3.1.1 외부공간의 배치

1) 외부공간 배치 특성



[그림 3-1] 제주 전통주거의 구성

주거내의 외부공간은 건물
을 비롯한 시설물의 배치나
돌담등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안거리, 밖거리, 모커리 등 각
동의 배치에 따라 마당을 중
심으로 하는 구심적인 대청배
치와 별동(別棟)배치의 형식이
철저하게 고수된다.

외부공간의 구성은 공간의
기능적인 요구에 대하여 명확

한 공간의 질서를 가지고 대응하며 체계를 만들고 있다. 큰 길에서 올래를 통해 마당, 상방, 안뒤에 이르는 과정이 암시(도입부)-유도(전곡부)-전환(발전부)-휴식(종결부)의 공간적 리듬(공간의 분절)을 갖는데, 이에 대하여 공간의 기능이 사람의 의식을 강요하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공간으로서의 연속성(Sequence)으로 완성되어 사는 사람의 소박하고 솔직한 심성을 나타내준다.

도입부에 해당되는 올래는 다시 물팡돌이나 어귀돌에 의해서 제 1차 암시를 받는 부분과 정낭에 의해 2차 암시를 받는 부분, 그리고 다리팡돌에 의해 유도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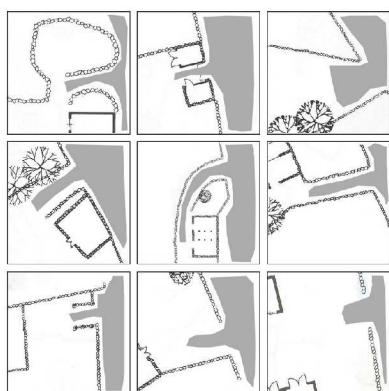
주거내 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별동배치에 따라 각 동사이의 외부공간이 우

1)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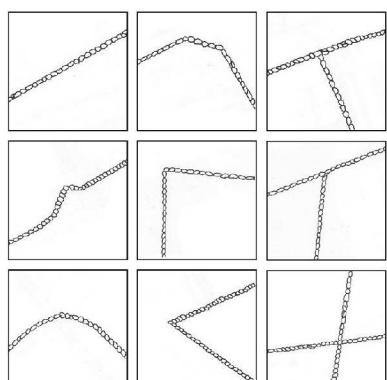
영, 놀굽, 우잣 등으로 자연스럽고 정연하게 마무리 된다. 특히, 밝고 개방적인 마당(공공적 작업공간)과 그늘지고 폐쇄적인 안뒤(개인적 생활공간)가 안거리의 상방을 사이에 두어 앞뒤로 자리 잡는데, 이것은 공기의 대류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대조적인 공간의 다양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의 유회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제주 주거의 전통적인 외부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① 올래



[그림 3-2] 올래 진입 형태



[그림 3-3] 올래 담장 형태

올래는 주택에 출입할 때의 집입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폭은 2.1m~3.0m 정도이고 길이는 2m~18m까지 다양하며²⁾ 형태도 I형, L형, S형 등 다양하다. 올래의 입구를 어귀라 부르는데 그 양쪽에는 어귀들이 놓이고 그 앞에는 말을 탈 때 디딤돌로 사용하는 물팡들이 놓인다. 이것들은 주택의 입구의 시작을 암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내부로 더 들어가면 일종의 대문 역할을 하는 정낭이 있는데 주인의 부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올래의 양옆을 따라 비가 올 때 신발에 흙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리팡들이 설치되는데 이것은 주택내부로 유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올래는 곧게 나 있지 않고 반드시 구부려져 있는데 이것을 올래목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올래목은 주택내부로 들어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긴 진입 공간에 변화를 줌으로써 지루한 감을 없애줌과 동시에 마당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전환의 기능을 한다.

2)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1992

② 마당



[그림 3-4] 마당공간

마당은 안거리와 밖거리, 목거리 등의 건물과 제주 돌담에 둘러싸여서 구성되어 지는 공간으로 마당의 폭은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의 폭인 7m~8m 범위로 정해진다.

마당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은 추수기의 작업공간이자,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비가 올 때에 대비하여 올래의 다리팡돌에 이어 마당의 둘레에 팽돌을 설치한다.



[그림 3-5] 마당 어컷돌

③ 안뒤



[그림 3-6] 안뒤

안거리의 뒷벽 한쪽 끝에서 다른쪽으로 원을 쌓아서 외부와 통하지 못하도록 만든 공간이다. 출입은 상방의 뒷문을 이용하거나 정지뒷문을 이용한다. 여기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세계를 차단하고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주변에는 넓적한 돌들이 깔려있

고 주인은 여기에 앉아서 명상에 잠길 수 있도록 휴식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신비로운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햅볕이 잘 들지 않아 시원한 바람이 있는 공간이고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되어 타인에 비공개되는 공간이기도 하

다. 즉 주택의 ‘음(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³⁾

④ 놀굽



[그림 3-7] 놀굽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뚫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날가리로 씌워 놓은 조영물을 ‘놀’이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를 ‘놀을 놓다’고 한다. 놀을 만드는 자리는 마당 한쪽 구석으로 우천시 침수를 피하기 위해 마당면으로부터 40~50cm 높게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했다. 이곳을 ‘놀’과 놀굽‘이라 하고 ’놀‘은 지붕과 함께 경관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⑤ 우영



[그림 3-8] 우영

울타리 안에 건물이 배치되고 난 여분의 터에 채소 등을 심어 부식을 자급하는데 활용되는 공간을 우영, 우영밭 혹은 우잣이라 부른다. 우잣 공간은 우영중 밭으로 쓰이지 않는 허드레 터로 외부 수장공간이 되는 것이다.

⑥ 통시

변소를 ‘통시’라 부르는데 일종의 우잣공간에 설치되며 부엌 반대쪽 또는 안거리 부엌과 멀리 떨어진 밖거리 옆에 위치한다. 그리고 대개 건물의 한쪽 옆을 돌아가서 설치되어 있어 마당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배려되어 있다. 통시에는 돼지를 직접 사육하여 인분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을 보는 장소에는 지상에서 2~3개의 계단

3)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연구, 한양대 박사학위 논문, 1993



[그림 3-9] 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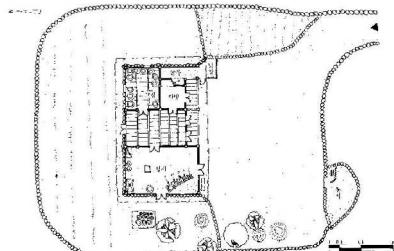
을 올라가도록 하여 두 개의 넓고 기다란 돌을 놓았을 뿐 구조물은 없다. 다만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담을 약간 높게 쌓았을 뿐이다.

3.1.2 건물의 배치

제주민가 평면은 육지의 결합방식과는 달리 분할방식으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서 제주도 민가는 집의 빼대를 만들어 놓고 각 방을 나누어 가는 방식으로 만들어 진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할 경우 기존건물에 증축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어야 한다.

1) 건물 배치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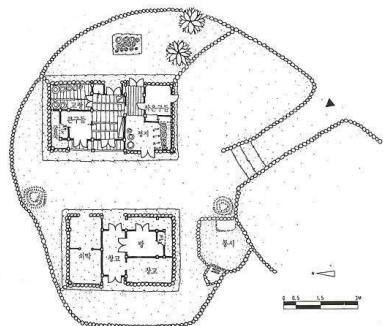
① 외거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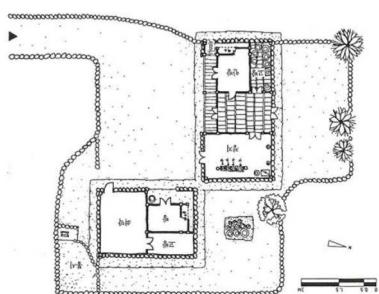
[그림 3-10] 외거리 집

돌담 울타리 안에 건물 하나(안거리)로 구성된 경우를 말한다. 2칸 막살이집, 세칸집, 네칸집이 있으며 막살이집 앞에는 반드시 마당이 있다. 이는 농작업의 공간으로서 통풍, 채광을 위한 인동간격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올래는 거의 없이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거나 있더라도 짧고 안뒤와 우영 등의 예비공간은 외거리집에서는 대부분 고려되지 않는다.

② 두거리집



[그림 3-11] 마주앉은 형



[그림 3-12] 모로앉은 형

두거리집이라 하면 한 울타리 안에 3칸집 또는 4칸집의 안거리, 밖거리 두 채의 건물, 즉 안팎거리 를 갖춘 집을 말한다. 이때 안팎거리가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이 마주보며 나란히 두이(二)자 형태로 배열된 집을 ‘마주앉은 형’이라 부르며 그자형으로 배치된 집은 ‘모로 앉은 형’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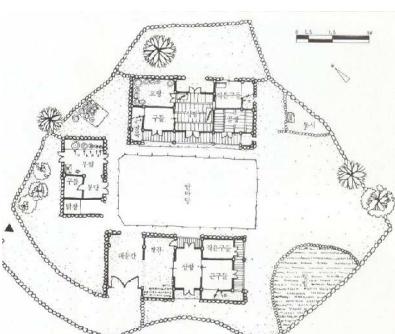
① 마주앉은 형(마주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 보도록 일렬로 배치되어진 집이다.

② 모로앉은 형(모로앉은 두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그자형으로 배치된 집이다. 이 때, 밖거리는 일조계수를 고려하여 안거리의 모에 앉하게 되며 대문은 집의 측면으로 되어 출입할 때는 그자로 꺽이어 마당으로 들어서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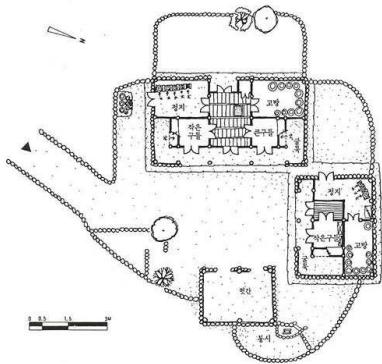
③ 세거리집



[그림 3-13] 마주앉은 형

한 울타리 안에 세 채의 건물이 배치된 집으로
서 안·밖거리형 배치에 모거리가 추가된 배치로 모
거리는 소규모의 경영시설이 대부분이고 안거리에
따른 징지거리가 되기도 한다.

세거리집은 북부지역에 많은데 대가족을 이루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는 제주도 특유의 가족제도에 기인하는 주택 형식인 듯하다. 이 형태는 제주도에 가장 많고 보편화된 주택의 형태이다.



[그림 3-14] 모로앉은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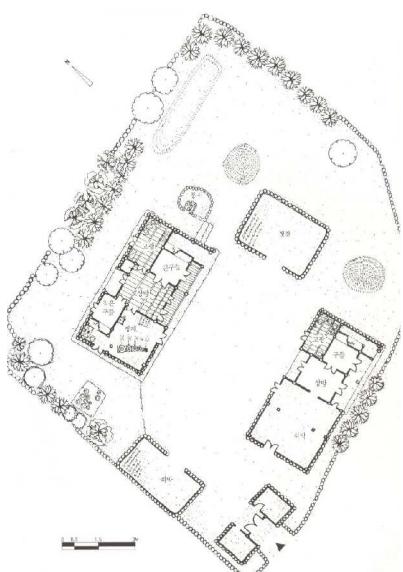
① 마주앉은 형(마주앉은 두거리집)

마주앉은 두거리집과 안·밖거리의 배치는 같으나 밖거리에 설치되었던 쇠막·헛간 등을 독립시켜 단채로 만든 형태이다.

② 모로앉은 세거리집

안거리와 밖거리를 그자로 배치하고 쇠막, 헛간 등을 안거리 맞은편에 설치한 집을 말한다. 즉, 밖거리의 부엌을 그대로 사용하고 여기에 설치되었던 쇠막 또는 헛간 등을 독립시켜 단채로 만든다. 이런 형은 모로앉은 두거리집과 마찬가지로 남부지역의 농촌에 많다.

④ 네거리집



[그림 3-15] 네거리집

안·밖거리를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게 일렬로 배치하고, 그것의 양쪽에 □자를 이루도록 외양간·헛간·수레간 등을 설치하고 이것들의 밖에는 이문 간을 만들어 놓은 형태이다. 이것은 제주민가에서 가장 발달되고 중농이상의 구족형의 주택으로 어떤 정형을 갖추지 않고 자유스런 배치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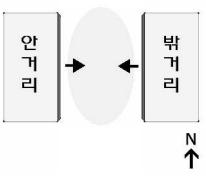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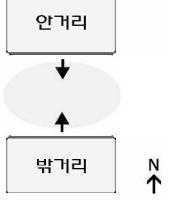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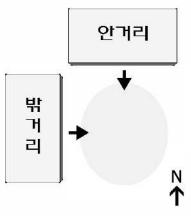
제주도 전통민가의 배치형태는 二자형 배치가 기본형으로서 그 변형인 ㄱ자형 배치, ㄷ자형 배치, □자형 배치 등이 생겼고, 一자형 배치는 二자형 배치의 미발달 또는 쇠퇴형이라 생각된다.

2) 건물 배치의 설계요소

① 건물 배치 특성 분석

외거리집인 경우 안거리만 위치하는 것으로 배치에 있어서 특이 사항이 없다. 따라서 제주 민가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마당을 구심으로한 안팎거리의 배치가 기본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세거리, 네거리의 경우는 두거리집에 거주공간이 아닌 목거리(부속채)를 추가한 유형으로 두거리 배치 분석 후 외부공간에 목거리를 배치하는 방법을 취한다.

[표 3-1] 건물 배치의 특성 및 문제점

건물 배치	특성 및 문제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건물배치의 기본형태 구심적 대칭형태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며 별동형태를 취한다. 세대간 독립된 형태로 살림은 분리되어 있으나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다. a의 경우 안팎거리가 동·서향으로 일조에 부족함이 있다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b의 경우 안거리는 남향을 취하지만 밖거리는 북향으로 일조에 문제가 생김 마당형성이 안정적이며 구심적 역할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형태에 의해 二형태를 취할 수 없기에 ㄱ형태로 배치 제주민가의 특성이라 보기 어려움점이 다소 있음 일조에 있어서 남, 동향으로 二형도다 유리함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二형보다 유리함 별동간 거리가 가까워 이동에 유리함

즉, 기본적으로 안거리, 밖거리가 배치되고 다른 부속동은 납은공간에 배치된다. 따라서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안거리, 밖거리의 기본적인 배치형식을 분석한다면 전체적인 배치 형식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1]은 기본형태인 안팎거리의 건물 배치의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한 표이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주의 민가는 바람에 대한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일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건물끼리 서로 바람을 등지고 막아줄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건축물의 경우 바람에 대한 극복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에 건물의 배치에 있어서 일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조를 고려한다면 그자형 배치가 가능적으로 L자형이 비해 유리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L형 배치와 가능적 측면 그형 배치의 조합이 필요하다.

② 연결요소

독립적 건물배치를 현대적으로 적용할 때의 문제점은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할 때 이동방법에 있다. 민가의 경우는 바람으로 인해 연결통로를 만들어 주지 못하였지만 현대 주택에서는 거주자의 편리함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연결 방법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연결복도 및 연결 공간은 기존에 별동 건물 배치의 디자인적 요소를 살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투명성 있고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한다.

[표 3-2]는 별동형 배치 건물의 연결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첫 번째는 복도를 설치하여 건물 간에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자연으로 열려 있는 마당의 특성을 해치지 않기 위하여 복도는 투명 채널 또는 아케이드 형태로 설치한다. 두 번째 방법은 건물 간에 간격이 가까울 경우 건물을 복도 형태로 연결해주거나 또는 건물 사이에 대청 등의 공간을 형성하여 복도겸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사용케 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번째에서 보여지는 건물을 1층, 2층으로 배열하여 건물이 하나의 복도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요소는 설치 시 전통민가의 별동형 배치 형태가 디자인적으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료를 다르게 하거나 규모를 기존 건물 보다 작게 하여 별동 형태가 부각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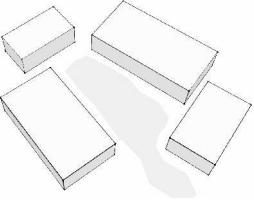
[표 3-2] 건물 연결 방법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二형 배치의 통로적용 • 공동 현관 적용가능 • 연결 복도는 유리 및 투명 재질 시공을 통해 마당의 영역성 유지 • 복도 디자인을 이용하여 세거리, 네거리 분위기 마당 연출 • 연결 복도의 마당 바깥방향으로 증축시 유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자형, ㄷ자형,ㅁ자형 배치에 복도식 적용 • 꺾이는 지점에 투명성을 가진 공간 형성 • 연결 공간내에 중정 등의 설치를 통한 자연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한동을 2층으로 올려 2층을 통한 이동 또는 2층 건물 밑에 복로를 설치하여 사용 • 주변 환경 및 대지에 알맞도록 비율조절이 필요함

③ 기타 특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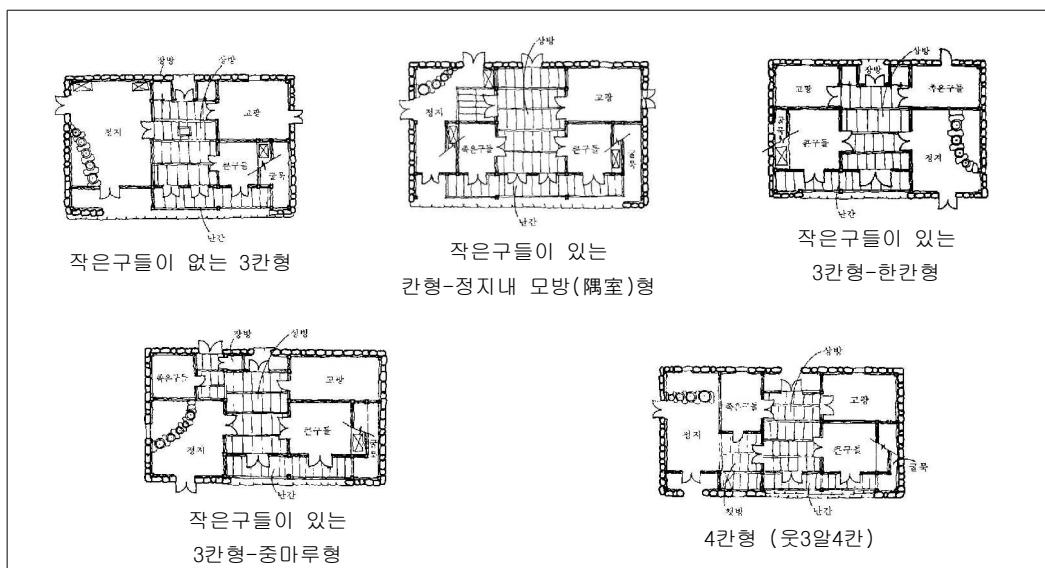
전통 민가는 건물은 기본적으로 마당 구심적으로 배치된다. 이때 배치는 대지의 모양 및 형태에 적합하도록 자연스럽게 배치된다. [표 3-3]은 이러한 배치 요소의 개념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표 3-3] 기타 배치의 특성 요소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 형태 및 자연지형에 적합하도록 배치

3.2 평면 구성의 특성 및 설계 요소

3.2.1 평면구성의 특성



[그림 3-16] 제주 민가건축의 평면유형

제주민가건축의 평면유형을 다음과 같이 대략 6종류로 분류할수 있다.

평면은 기본적으로 내부공간을 전후로 양분하는 겹집형식이며, 전면의 칸수에 따라

2칸형, 3칸형 4칸형으로 구분된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상방, 구들, 고팽, 정지, 챗방, 낭간, 굴목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방을 중심으로 좌우에 구들과 정지를 배치하는 3칸형식이 기본이 되며 큰구들의 뒤편에 고팽을, 정지칸의 한편에 작은 구들이나 챗방을 위치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제주도 전통민가의 평면적 특징은 겹집형식의 일자형으로 꺽은집이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3간집에서 보면 상방을 중심으로 한쪽에 큰 구들의 뒷간으로 고팽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구들 또는 정지 등이 놓인다. 특이한 것은 이러한 고팽, 작은 구들 또는 방이 거의 고정적 위치에 있다.

그리고 앞을 통해서는 완충공간인 퇴에서 마당으로 연결되고 뒤쪽으로는 뒷문을 통해서 안뒤로 트인다. 전후좌우에 뒷간이 있어 측면의 퇴는 난방을 위한 굴목이 되고 고팽과 정지는 뒷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방에 비해 넓다. 이러한 퇴는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방에 비해 넓다. 이러한 퇴는 낮은 기단과 함께 동선연결을 원활히 해주며 방에 악천후의 기후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중간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취사와 난방의 분리에서 얻은 합리적인 평면구성이 제주 민가의 두드러진 장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2.2 평면구성의 설계요소

1) 이중외피 구조

제주도의 민가는 건축 형태에 미치는 영향중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집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바람이 육지보다 매우 강하여 바람에 저항하는 평면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겨울의 북풍에 대한 저항으로 건물의 북쪽면에는 주 생활공간이 아닌 보조공간을 배치하여 열적 완충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안뒤와 통하는 문인 경우 문의 크기를 최소화 해주고 문의 양옆에 장방을 설치하여 외벽이 바로 외부에 면하지 않도록 하였다.

굴목의 경우도 방을 기준으로 건물의 외피쪽에 위치하여 열적 완충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다음 [표 3-4]는 제주 민가의 평면에 주 생활공간과 보조공간을 분리하여

표현한 것으로 겨울과 바람에 저항한 제주 민가의 평면을 보여주고 있다.

[표 3-4] 제주민가의 이중외피 구조

평 면		특성 및 문제점
3 칸 집	기 본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생활공간인 구들(방)과 상방(거실)의 벽은 건물의 외벽에 바로 접하지 하지 않고 다른 공간에 접하게 함으로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하고있다.
	모 방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생활공간이 집속에 집 개념으로 자리 자고 있으며 다른 부속공간들을 외부에 배치한다.
	한 칸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욕실, 다용도실, 보일러실 등은 가급적 본채 후면의 처마밑을 이용한다. 이러한 실은 건물이 남향 배치일 경우 후면에서 방한벽 역할도 한다.
	중 마 루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안에 공간이 있는 형태로 중심공간은 주생활 공간이 위치하고 바깥쪽으로 부속공간이 위치한다.
4칸집		

이중외피 구조는 현대 주택에 있어서도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구조라 할 수 있으며 이중 외피의 적용 가능성은 [표 3-5]와 같다.

기본적인 적용 방법은 주 공간을 건물의 주 생활공간인 방, 거실, 부엌이 외벽과 면하는 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도, 뒷마루 또는 각 실의 보조 공간을 건물의 외벽에 면하도록 위치시키는 방법이다.

[표 3-5] 이중외피 구조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라스, 통로, 계단과 같은 매개공간을 건물 외부에 위치시켜 단열구조를 형성. 편복도형, 회랑 복도형, 양복도형 등의 이중외피 평면을 구성. 이중, 삼중창으로 열적효과, 은은한 분위기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생활공간 : 큰구들(주인실 및 침실), 작은구들(자녀방), 상방(거실) 보조공간 : 고팽(창고), 굴목(보일러실), 정지(부엌), 낭간(툇마루), 화장실, 욕실 등 주 생활공간을 평면의 중심에 보조공간을 건물의 바깥쪽에 배치함으로서 단열구조를 형성한다. 보조공간의 배치시 방위별 성격에 따른 공간 계획을 한다.

2) 평면 배치 방법

제주민가의 평면은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의 평면을 3칸 또는 4칸으로 구성하여 각 공간을 1개 또는 2개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방법을택하고 있다. 4칸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따로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한다[표 3-6]. 이러한 평면 배치 방법에 의해 제주도의 민가는 3칸 또는 4칸의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게 되고 입면에 있어서도 높이는 일정한 상태에서 가로축으로 증가되는 형태를 있다.

민가의 평면은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실을 배치시킨 것으로 상방에서 각 실로 바로 이동 가능한 배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치는 공간의 효율적 차원에서 높게

평가되지만 주택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커진 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평면 배치 방법의 현대적 적용 방법으로는 건물 공간을 확장 할 때 제주민가가 가지는 입면의 비례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세로축 2칸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로축 방향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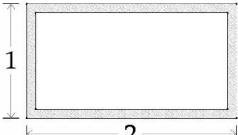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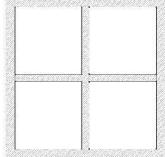
[표 3-6] 제주민가의 평면 배치 방법

건물 배치		특성 및 문제점
3 칸 집	기 본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큰구들, 고팡, 상방을 구성하고 있는 2칸은 제주도 민가의 평면에서 평면의 확장에도 변하지 않는다.
	모 방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형은 한칸 확장을 한것이며, 모방형은 정지 모서리에 건물의 구조체와 상관없이 모서리에 방을 만든것이다. 한칸형은 상황에 따라 정지를 2등분하여 필요에 따라 구들, 정지를 위치시킨다. 중마루형은 구들 공간을 반으로 나눠 상방의 마루를 연장한다.
	한 칸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칸집은 3칸집 한칸형에서 정지공간을 한칸 덧붙여주는 형이다.
	중 마 루 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장은 한칸 확장을 하고 2등분 적으로 공간을 나누면서 사용한다.
4 칸 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쪽 끝은 항상 정지(부엌)가 위치하며 전면부로는 항상 출입구가 있고, 배치 상황에 따라 측면 또는 후면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다.

3) 기타 특성 요소

제주 민가의 평면은 일반적으로 가로:세로 비율이 2:1의 평면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겹집형태 구조로 되어있다. [표 3-7]은 이러한 배치 요소의 개념을 이미지화한 것이다.

[표 3-7] 제주민가 평면의 특성 요소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2:1 비율의 사각형 평면으로 동별 비율을 가능한 유지하여 비슷한 규모의 주택 단지 경관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중외피요소와 함께 냉난방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로 실 배치 시 겹집형태로 한다.

3.3 실 단위별 특성 및 설계 요소

3.3.1 중심공간

민가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구들, 상방, 정지를 이 장에서 다룬다. 이 공간들은 현대 주택에서 방, 거실, 주방으로 쓰이는 공간으로 실 크기의 변화는 있지만 민가의 실의 특성 그대로 현대에 사용된다. 따라서 각 실의 특성은 의장적인 측면에서 적용가능성이 가장 크다.

1) 구들



[그림 3-17] 구들

① 구들의 특성

수면, 휴식, 학습 등 사적공간으로 온돌 설비가 된곳을 ‘구들’이라 부른다. 바닥은 유지바름이고 천장역시 종이반자이다. 크기는 2.0 ~ 2.2m 사방이며 높이는 1.9~2.0m로 낮다. 각변과 높이의 비가 1:1:1로 폐적공간 규모임이 주목된다.

구들의 수가 둘 이상일 때는 고팽에 접한 구들을 ‘큰구들’ 나머지를 ‘작은구들’이라 한다. ‘큰구들’은 부친, 유아, 내객의 침실로, 조상신의 제사 등의 기능으로 쓴다.

‘구들’의 ‘굴뚝’쪽으로는 벽의 상반부에 벽장이 있고 여기에 케를 올려놓는다. ‘구들’에서 ‘상방’으로는 두 짹의 여닫이문이 출입용이고, 마당 쪽으로의 한지(韓紙)바른 채광, 조망용인 살문을 두고 ‘창문’이라 한다. 이 창문의 밖에는 비바람에 대비하여 세살문이나 판문으로 된 덧문이 설치된다.⁴⁾

구들은 큰 구들(부부방)과 작은 구들(자녀방)이 있는데, 상방의 좌우에 위치한다. 밖거리 구들에는 세대가 전혀 다른 성장한 아들 부부 또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부부 등이 산다. 이곳에 조상신을 모시는 사적인 공간이 된다. 취침, 독서, 휴식의 일상생활과 출산, 임종, 결혼 시에 사용되는 공간이다.

② 구들의 설계요소

구들의 성격 그대로 현대 주택에서 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구들의 가지는 형태적 특징을 현대 주택에 반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으며 인위적으로 1:1:1의 비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들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성격과 벽면, 천장 등의 의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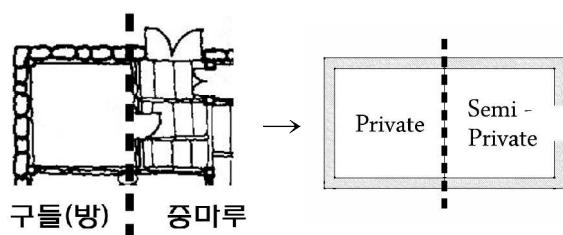
구들운 앞에 특성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적공간, 온돌(좌식)공간, 제례공간이며 마당

4)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6

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각 특성을 이미지화 하면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구들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전통공간 특성	현대적 적용법	개념 - 도식화
마당으로 열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과 접하도록 평면구성 마당을 향한 전면 창 	
사적생활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방에 침실, 사적 공간을 따로 분리 	
좌식 (온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식과 좌식 공간의 분리 바닥의 높이차를 이용 	
제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기틀을 나타내는 상징적 공간 빛을 이용 폭이 좁은 제주 전통 창호 	



[그림 3-18] 종마루

특히 작은 구들의 경우 구들 앞에 중마루가 있는 경우가 있다. 중마루는 구들의 private 한 공간과 상방의 public한 공간의 중간적 성격으로 semi-private 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은 전실 공간으로서 현대적으로 응용 가능하다.

2) 상방



[그림 3-19] 상방

① 상방의 특성

상방은 3칸집, 4칸집에서 볼 수 있다. 상방(동부지역), 삼방(제주시 및 서부지역), 마리(대정)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상방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여 가족의 단락, 하절(夏節)의 침소, 접객, 식사, 무속신의 제사, 작업 등으로 상방이라기 보다 ‘삶방’이라고는 호칭이 원명(原名)일 것이라는 설도 있다.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천정은 연등천정으로 높고, 징두리는 판장벽이며 상벽은 토벽 또는 회바름이다. 전면 출입문을 대문이라 하고 안뒤로 트인 문을 뒷문이라 칭하는데 제주무속의 가내신(家內神) 중 제일위계인 문전신이 대문을 관장한다고 믿고 있으며 조상 기제사시 봉제에 앞서 상방에서 문전제를 지낸다. 대문 옆에 작은 호령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채광용, 출입자의 확인에 쓰인다. 이 창을 제창문이라고도 한다.

이상방의 정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부섭(돌화로)이 설치되기도 했었어나 현재는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다.⁵⁾

민가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개방적인 공간이다. 상방은 2칸형 민가에서 3칸형으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엌공간이 기능분화된 것이다. 따라서 3칸집과 4칸집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상방은 주거생활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관혼상제, 가족회의, 단란, 손님접대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적인 요소가 같은 곳이다. 집 주인의 권위를 표출하는 곳이며 가택신으로서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최고신인 성주신을 모시는 곳이기도 하다. 상방 뒤쪽 중앙에 설치된 부섭(돌화로)는 난방을 위한 것으로 예전에는 제사에 쓰이는 음식. 제수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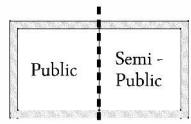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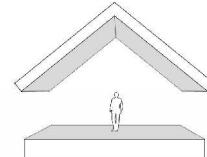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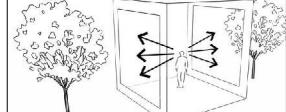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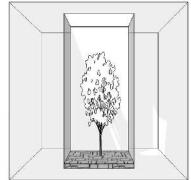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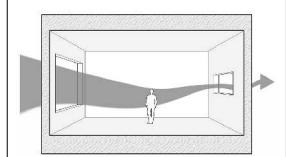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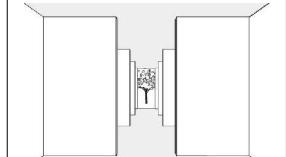
② 상방의 설계요소

상방도 구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는 의장적 특성 적용이 가능하다.

5)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6

또한 상방은 일반 전통주택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용 가능한 요소는 [표 3-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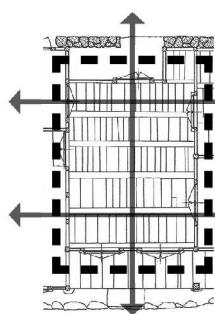
[표 3-9] 상방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전통공간 특성	현대적 적용법	개념 - 도식화
남성, 여성의 공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공간이지만 구들앞 상방은 남성, 정지앞 상방은 여성의 공간으로 사용 웅全覆盖과 가족실로 기능 분화적인 측면에서 해석 	
연등천장 마루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등천장의 전통적 조형요소를 현대화 	
개방적 실내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과 뒷마당이 접하도록(외부-내부-외부) 평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의 도입 주택 내부에 중정 설치 	
자연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 후면의 개구부 크기와 위치 조절을 통한 통풍조절 맞통풍이 가능한 개방적 마루공간 재현 	
공간 확장성 시각의 중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변형 창호와 벽을 이용한 공간의 확장 	

상방은 전면과 후면으로 열려 있는 공간으로 전면에 창호와 후면 창호의 개구부의 수를 조절하여 자연환기가 가능케 하였다.



[그림 3-20] 상방과 구들



구들, 정지, 고팽은 상방의 양쪽 측면에 서로 문을 마주보면서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실 이동이 상당히 좁은 동선이 구성되어질 뿐만 아니라 문을 열었을 경우 공간의 확장을 가

져온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 주택을 설계 할 때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공간 배치 적용이 가능하다.

3) 정지



[그림 3-21] 정지

① 정지의 특성

주택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칸집에서 $1/2$, 3칸집에서 $1/3$, 4칸집에서 $1/4$ 이 일반적이다.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은 돌을 쌓고 흙만 바른다.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솔은 대개 외벽측에 네모로 다듬은 대형 현무암 3개를 세워 솔덕이라 하고 여기 솔을 크기 순서에 따라 걸어 높고 사계절

취사에 이용한다. 솔이 걸린 측의 외벽에는 1 ~ 2개의 광창을 만들어 채광과 배연이 되도록 했다.

다른 한쪽 벽에는 물항과 살래가 놓이고 마당쪽 정지 앞문 측에 뱀감을 놓는다.

정지의 기능은 취사, 작업, 저장 등이며 상류층의 3칸집이나 4칸집에서는 이정지가 병동으로 떨어져 모커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⁶⁾

주택에서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칸집에서 1/2, 3칸집에서 1/3, 4칸집에서 1/4이 일반적이다. 정지는 가사노동의 공간이며 대표적인 여성공간이다.

정지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으며 벽은 돌을 쌓아 흙만 바르며 천장은 구조가 노출되어 있다. 난방과 취사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는 특징이 있고, 찻방이나 상방으로 직접 연결되어 합리적인 공간배치를 하고 있다. 상류층의 3칸집이나 4칸집에서는 정지가 별동으로 떨어져 모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다.

② 정지의 설계요소

제주 여성은 생업과 가사 노동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했기 때문에 정지 공간은 작업공간으로도 같이 활용되었으며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신발을 신고 생활한다.

현대 적용 가능한 설계요소로서 외부활동의 연장공간이자 부엌의 확장 공간으로 다용도실을 적극적으로 설계가능하다. 다용도실은 외부와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부엌현관을 계획하고 비 탈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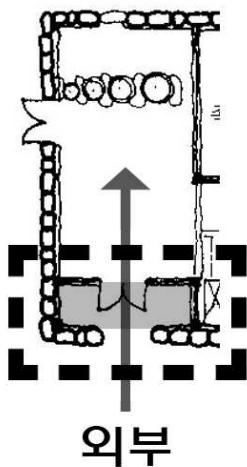
부엌현관인 경우는 현대 주택의 설계에서 주방가구의 배치가 불리함에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적극 도입한다.

특히 부엌현관이 외부에 직접 면해서 바람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경우에는 부엌 앞에 있는 고랑캐방 같은 전실을 두어 바람을 차단해줄 수 있다.

3.3.2 보조공간

민가에서 주생활 공간을 보조 해주는 공간으로 현재에는 없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는 공간으로 민가에서 고팡, 굴뚝, 찻방, 낭간, 고랑캐가 해당된다.

6)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7



1) 고팽



[그림 3-23] 고팽

① 고팽의 특성

고팡은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수장공간이다. 흙바닥이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 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한 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두 짹의 판문으로 통한다. 고팽이 부엌과 떨어져서 상방을 사이에 두고 안방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분할식 방번에 의한 간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소농으로 지척민빈(地瘠民貧)?? 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비축이 절실함에서 온 조냥정신의 유형화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곳은 무속신 안칠성의 영역이며 제사 때에는 이 신을 위하여 고팽상을 차린다.⁷⁾

큰 구들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식량과 씨앗등을 담은 항아리와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저장공간이다. 흙바닥이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 반자이다. 환기를 위한 두 개의 작은 창을 내고 상방에서 통한다. 고팽이 상방을 사이에 두고 부엌과 떨어져서 큰구들에 접하여 위치한 이유는 평면계획상 분할식 방법에 의한 한간 나누기를 합리적으로 한 것과 소농등의 생활환경에서 식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② 고팽의 설계요소

기존에 저장창고였으나 최근에 민가를 보수하여 사용한 주택을 보면 일반적으로 방으로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다. 큰구들 뒤에 바로 위치하며 규모면에서도 큰 구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집안의 귀중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큰구들을 사용하는 부부가 관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부부의 작업실 또는 큰 구들을 보조하는 공간으로 현대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7)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6

2) 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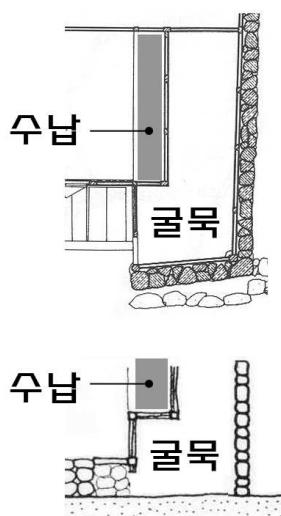


[그림 3-24] 굴목

① 굴목의 특성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있던 제주에는 난방을 위한 공간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굴목이라고 한다. 굴목은 정지와 떨어진 큰 구들과 측벽사이에 위치한 공간에 만들어 진다. 이로인해 굽구의 상부는 방에서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에는 방의 중앙위치에 불을 뗄 수 있는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제주도에만 있는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난간 또는 측벽에서만 출입할 수 있으며, 공간은 폐쇄되어 있다. 난방 연료는 말린 소똥이나 말똥을 이용하였으며 굴목의 고팽쪽 구석에는 불을 때고 난 재를 쌓아두는 공간이 있다.

② 굴목의 설계요소



[그림 3-25] 굴목의 수납

기존에 구들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하부는 난방용으로 상부는 수납장으로 사용되었다.

현대주택의 공간 위치로 본다면 방 옆에 외벽 쪽으로 위치하는 난방기구(가스보일러 등) 설치된 발코니 공간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굴목만을 살펴보면 문이 없는 출입구만을 제외하고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기존 민가를 보수하여 사용하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보일러실 또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주택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드레스 룸, 발코니, 보일러실로 이용 가능 할 것이다.

3) 챗방



[그림 3-26] 챗방

① 챗방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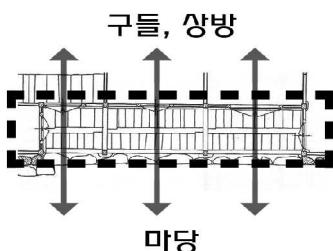
채방, 찬방, 찻방, 채방이라고도 불리운다.

3칸집에서 정지의 분리로, 4칸집에서는 상방 뒤 정지사이에 1칸 크기 찬방이 생겼다. 바닥은 우물마루, 벽과 천장은 상방과 같은 마감으로 상방의 기능에서 식사 전용으로 공간이 분화된 근대적 공간이라 하겠다. 식사기능 외에 상보기와 조리를 위한 작업장도 된다.

4) 낭간



[그림 3-27] 낭간



[그림 3-28] 낭간 평면도

① 낭간의 특성

낭간은 마당과 상방의 중간 매개 공간으로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광의 여과, 일시적 수납공간에 유용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중간성격을 지닌다.⁸⁾

낭간은 내부와 외부의 공간적 완충 및 매개 역할을 하는 개방된 공간이다. 육지의 뒷마루와 같은 형태이다.

② 낭간의 설계요소

민가의 전면에 위치하면서 각 실로의 복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 수납 장소로도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기존의 용도 그대로 뒷마루, 테라스로 사용도

8) 제주도민속자료, 제주도, p147

가능하며 각 실로의 이동을 위한 복도 및 홀로 사용 가능하다.

5) 장방



[그림 3-29] 장방

① 장방의 특성

상방 뒤편의 양쪽 귀틀에 만들어지는 불박이 장이다. 상방에서 안뒤로 이어지는 문이 설치된 벽과 문 밖으로 설치된 석벽사이에 공간을 에워싸서 만드는 불박이 장으로 한쪽 또는 양쪽으로 설치되며 필요에 의해 장방의 문 위치가 결정된다. 수납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집의 뒤편에 위치하여 열정 완

충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겨울철 외기로 부터의 영향을 최소화 해준다.

② 장방의 설계요소

주택설계에서 실 배치 시 불가피하게 데드존이 생성될 경우 수납공간으로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외부와 직접적으로 면하게 되는 면에 설치하여 열적 완충공간으로서 가구 배치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3.4 건축의장 특성 및 설계 요소

3.4.1 지붕



[그림 3-30] 지붕

① 지붕의 특성

제주도 민가의 지붕 경사를 보면 대부분 20° 이하로 완만한 편이다. 또한 격자 모양으로 조밀하게 누름줄을 설치하였고, 그 줄의 굽기는 바람이 약한 한라산의 동쪽 지역(약 3cm)보다 한라산의 서쪽 지역(약 4cm)에서 굽게 하였다⁹⁾. 과거에는 ‘새(띠)’로 줄을 땋아 누름줄로 사용하였다. 근래에는 내구성이 강한 고무 밧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이 더욱 강한 우도에서는 개량된 슬레이트 지붕도 경사가 $15\sim20^{\circ}$ 로 매우 완만하다. 지붕에 용마름을 하지 않은 것도 강한 바람에 의해 지붕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처마의 높이도 2m 이하로 낮게 하여 바람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최소화하고 있다.

지붕의 처마를 살펴보면 수평차양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마가 깊으면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풍동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새’로 지붕을 엮어 매었다. 그리고 처마의 높이가 낮으면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한 건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처마는 낮고 깊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② 지붕의 설계요소

민가의 지붕을 현대 주택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따라서 민가 지붕의 각 특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토록 해야 한다. 다음 [표 3-10]은 제주 건축의 지붕으로 전통요소의 반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붕에 전통의 반영방법으로는 지붕의 각 의장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반영했을 수 있다. 특히 형태적인 측면에서 제주 민가가 가지는 곡면을 주로 사용

9) 장보웅, 제주도의 취락입지에 관한 연구 – 변천과정과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1974

[표 3-10] 제주 건축의 지붕

전통요소	사진	표현분석
형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민가 전통 건축 형식의 기본형태 주변 자연환경과 융화되는 유기적 형태
형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와가로 지붕 빼대 형태를 그대로 우진각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다.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초가의 곡선을 살린 유기적 건축 형태 곡선표현의 가능한 현대적 재료의 선택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초가의 경관모습을 살린 연속적 지붕형태로 평면에 맞게 현대적으로 재해석 곡선표현의 가능한 현대적 재료의 선택
형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 초가의 곡선을 살린 유기적 건축 형태 새(띠)의 자연적 재료를 다른 자연 재료인 붉은 송이로 대체
형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가, 와가 형태 모두 가능 신소재인 플라스틱 벗집을 이용하여 전통적 형태를 그대로 추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처마 서까래의 형태를 표현 공법상 재료, 재료의 크기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

형태, 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의 없는 수평적 요소의 표현 • 공법상 재료, 재료의 크기 등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녹화 • 지붕위 짚단의 단열 녹화지붕 역할

하고 일부 지붕은 민가 뼈대의 기본구조인 우진각 지붕을 사용하였다. 서까래 부분은 형태만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재료의 적용방법으로는 민가의 ‘새’를 현대 주택에 사용되기에 불가능 하므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붉은 송이를 지붕에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제주 민가의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철재를 사용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지붕의 경우 민가의 지붕을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현대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음으로 현대적인 재해석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지붕은 주택 자체의 외관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마을 단위 측면에서 단지의 스카이라인을 구성해 주는 요인으로 지구단위 차원에서 지붕의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4.2 입면



[그림 3-31] 제주민가의 입면

입면의 형태는 특히 기후적 영향에 의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창호에 있어서 쌍여닫이문의 폭은 750mm~900mm이며 높이는 일반적으로 1200mm~1500mm로 폭과 높이가 일반적 문에 비해 크기가 작다. 문 양쪽으로 벽을 이루는 부분은 제주도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현무암을

사용하여 구성되어 있다. 정면에서 보는 민가는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하여 장방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한옥과는 다른 비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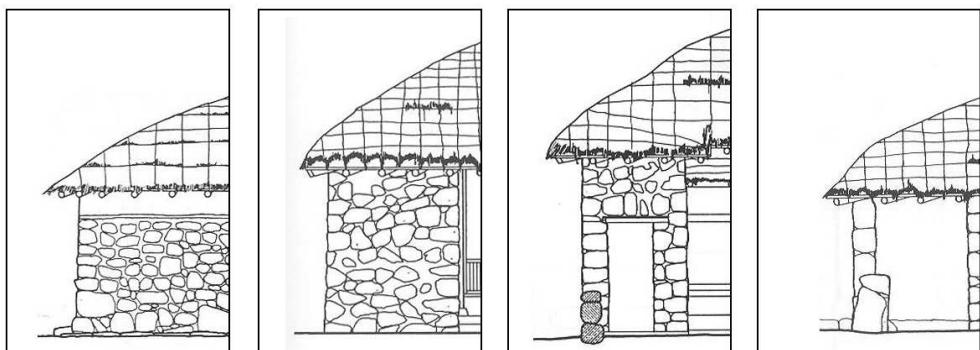
모습을 보여준다.

입면은 기단, 벽, 지붕이라는 건축의 기본 구축방법인 삼단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면 서도 현무암을 사용한 석벽으로 의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① 기단

현무암을 일단 15cm 내외의 높이로 그 폭은 처마 선단까지 같은 폭 90cm로 축조되었는데, 잇돌이라 불리운다. 제주도 민가의 기단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다.

② 석벽



[그림 3-32] 석벽의 형태

석벽은 목조구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구체 밖으로 쌓은 비내력 벽으로 현무암으로 쌓아 내피와 외피를 분리하는 특징이 있다. 석벽에 사용하는 돌은 15~30cm 정도의 두께이고, 지면에서 상부 마루리까지의 높이는 1.9m 내외이다. 기울기는 10cm 내외의 기울기로서 갈수록 들여쌓아 무너짐을 방지한다.

③ 벽체

외부 일부 및 내부 벽체의 하부는 판장벽이며 상부는 흙마감이다. 벽체구조 방식은 심벽식으로 기둥이 밖으로 보이도록 기둥 사이에 벽을 만들었다. 외벽은 거의 이중벽

으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둘러 쌓은 것이 육지부와 비교해 보았을 때 특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내벽은 경제적 사정에 따라 구조재가 다른데 토벽상태 또는 토벽 위에 도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하반을 목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많다.

3.4.3 재료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90%이상의 지질이 현무암으로 되어 지반을 이루고 있다. 현무암은 취락형태와 그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를 작용한다.

지붕의 재료로는 경량의 식물성 재료로서 엽경에 각피가 잘 발달하고 유성분이 많아 저흡수성인 띠(茅)로서 건조가 빨라 유리한 재료이다.

벽면의 재료로는 우선 돌과 흙, 그리고 나무가 주로 쓰인다. 이중 벽구조로 외벽은 암회색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내벽은 토벽상태가 되거나 토벽위에 도장을 가하고 있다.

① 새(쇠출)

새는 지붕의 재료가 된다. 새를 폐서 지붕을 두텁게 덮으며, 새끼를 꼬아서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횡목에 고정시킨다. 이러한 새는 한라산 기슭 오름의 새왓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전 가을에 베어 놓았다가 겨울에 쓴다.

② 현무암

현무암은 제주도에서 제질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재료중의 하나였다. 제주도의 생성된 배경을 지질학적으로 볼 때 제3기 말에서 제4기초에 걸쳐 수십차례에 걸친 용암 분출이 있었고 그로 인해 제주의 지질표층은 현무암층으로 덮히게 되었다.¹⁰⁾ 현무암 층으로 이루어진 기반과 남태평양에서 휘몰아쳐오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바람을 이겨내면서 지천으로 널려진 돌을 생활도구 및 건축재료로 이용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였다. 주로 현무암은 전통민가에서 돌담

10) 김세균, 제주의 돌, 1987

의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섬 전체를 하나의 들의 선으로 연결하다시피 이어놓은 밭담들은 제주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계의 역할을 하였다.

제주의 전통적인 민가는 거의 전누가 돌로 이루어졌는데 울담부터가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쌓여진 돌담으로 되어 있어 풍속 영향을 낮추는 효과를 낸기도 하였다. 올래에는 정주석을 만들어 정낭을 끼워 놓고 대문을 대신했으며 정지의 아궁이, 초석과 기단, 그리고 물허벽을 놓는 물팡도 돌을 이용하였다, 놀굽도 잡석을 쌓아 만들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생활도구, 농기구에도 돌이 널리 사용되었다.

제주도 전통민가를 포함한 제주도 전체적인 모습이 섬세하지 못하고 묵중하며 또 화려하지 못하고 소박한 느낌을 주는 것은 제주를 뒤덮은 현무암과 그것이 고곳에 사용되어진 데서 비롯되는 이미지도 한 몫을 하는 듯하다.

제4장 특성 요소의 조합 가능성

4.1 건물 배치 가능성

4.1.1 배치 특성의 적용 가능성

제주 민가의 배치 특성으로 별동형 배치, 마당 구심적 배치, 대지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배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배치 특성은 당시 생활문화적인 특성에 의해 제주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 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 어떠한 측면에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찾아보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별동형 배치 특성

기후환경과 생활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특성으로 주택 배치에 있어서는 육지와 성격이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별동형 배치는 바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건물의 피해를 줄이고 작업환경(마당)을 만들어 주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건물차원에서는 건물의 규모를 줄여서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바람에 의해 파손이 생길 경우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위 건물 피해로만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일조 환경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동형 배치 형식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바람에 의한 문제점은 현대 건축 기술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별동형 배치의 기후 환경적 특성 적용에 있어서는 바람 아닌 일조에 대한 고려가 현대 적용에 있어 더 중요할 것이며 일조를 고려한 상태에서 별동형 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한다.

전통 민가의 별동형 배치의 각 특성에 따른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1]과 같다.

[표 4-1] 별동형 배치 특성의 적용 가능성

건물 배치 형식		적용 가능성
외거리	안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가 살고 있는 기본형으로 현재 주택에 적용에 있어서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마주앉은 두거리	안거리 밖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거리에 밖거리에 2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이다. 안거리 위주의 건물 배치를 취하는데 안거리가 남향일 경우 밖거리는 북향을, 안거리가 동향일 경우 밖거리는 서향을 취하게 되면서 주택으로서 불리한 점이 있다.
모로앉은 두거리	안거리 밖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거리, 밖거리 배치 시 일조에 있어서 마주앉은 두거리보다 유리하다.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 두 동간 거리가 가까워서 이동하기 쉽다.
마주앉은 세거리	안거리 목거리 밖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은 마주앉은 두거리와 같은 배치 형식으로 향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다. 적용 방법으로는 밖거리와 목거리의 건물 용도를 바꿔주면서 향에 대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고 마당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다.
모로앉은 세거리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은 모로앉은 두거리와 같은 배치 형식으로 현대적 적용에 적합하다. 목거리의 경우 대문, 주차장등의 부속공간을 배치함으로서 구심적 마당공간 형성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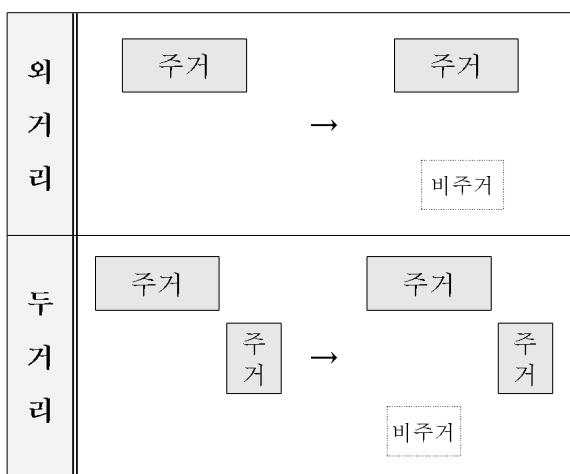
<p>네거리</p>	<p>안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은 마주앉은 두거리와 같은 배치 형식으로 향에 대한 불리한 점이 있다. 현대적 적용 방안으로 주거와 일조를 고려하였을 때 4동을 배치할 경우 모로앉은 세거리 형태에서 목거리가 추가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	--

현대적 적용 방안에 있어서는 목거리의 배치보다는 주거공간인 안거리, 밖거리의 배치 방법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거 공간의 배치 형태만을 고려한다면 외거리, 마주앉은 두거리, 모로앉은 두거리의 3가지 형태뿐이며 이러한 형태 가운데 일조를 고려하여 현대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배치 형태는 외거리, 모로앉은 두거리로 볼 수 있다.

2) 마당 구심적 공간 형성

별동형 배치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에서 적용가능 한 형태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거리형, 모로앉은 두거리형으로 볼 수 있다.

[표 4-2] 마당 구심적 공간 형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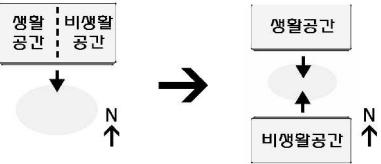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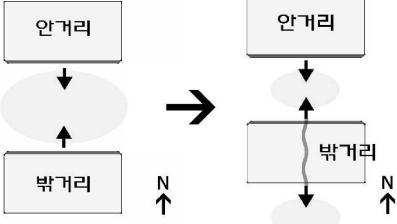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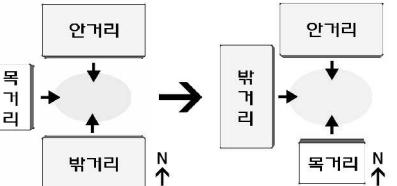
최근에는 기본적인 주거 공간 이외에 차량 소유로 인한 주차장, 개인 활동을 위한 작업실 등의 부속 공간들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적인 주거공간에 부속 공간(작업실, 주차장, 창고 등)을 배치 할 경우 제주 민가 배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마주앉은 두거리 형태를 적용하여 [표 4-2]에서 보여지는 □ 공간에 배치한다면 제주 민가의 마당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마당공간을 형성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담장, 기타 부속 시설들과 함께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배치 방법은 현대적인 해석을 통한 배치 방법이다. 반면 민가의 전통적인 二자형 배치를 설계의 개념으로 선택하여 二형 배치를 의도적으로 적용할 경우의 방법으로는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二형(마주앉은) 배치

개념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거리 + 목거리 형태 한거리 배치를 기능 분화를 통해 二형 배치 형태로 분리하여 마당구심적인 전통 배치 형태를 취한다. 거주공간의 일조해결, 마당공간 유지 비 생활공간(목거리)는 대문, 주차장, 창고, 화장실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거리, 밖거리 형태를 유지 밖거리 남쪽으로 마당을 형성함과 동시에 밖거리 평면을 남, 북향이 가능하도록 평면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거리, 네거리인 경우 마당구심적인 건물의 배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밖거리와 목거리의 위치를 바꿔준다. 거주공간의 일조해결, 마당 공간 유지

4.1.2 배치 계획 가능성

앞에서 별동형 배치와 마당 구심적 배치를 현대 주택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별동형 배치의 적용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형태적으로 차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생활 문화적 특성에서 나온 것으로 현대 적용에 있어서도 현대 생활에 따른 별동형 배치 적용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성은 새로운 생활패턴을 가져왔으며 생활의 변화는 주택 계획에도 반영되어 지기에 주택계획에 있어 가족 구성원에 따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1) 가족구성에 따른 건물 배치

제주도의 경우 이사 비율은 14%로 일반적으로 거주자들은 한곳에 정주하여 평생을 살아간다. 따라서 결혼을 하면서 분가한 주택이 2인 생활에서부터 자녀의 탄생으로 인한 가족구성, 다시 자녀가 분가되어서 2인 또는 1인으로 살게 되는 가족 구성의 단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이 계획되어야 한다.

생활 문화적 특성에서 별동형 배치는 한 울타리 안에 한 세대 이상이 살아가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도록 한 배치의 방법이다. 하지만 현재 분가형식은 과거 제주의 생활에서처럼 분가를 하되 맏아들일 경우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를 하는 형식이 아니라 독립된 주택의 분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민가의 배치는 안거리, 밖거리 형태로 별동형으로 구성되어 한울타리에 두 살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혼인과 동시에 장남이 분가되면서 생활공간을 분할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장남분가의 생활문화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나 분가를 할 때 한울타리 분가가 아니라 완전 독립된 분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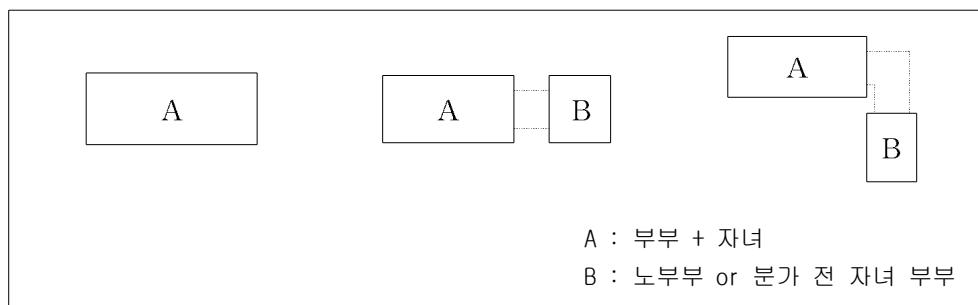
따라서 주택인 경우 1인 생활에서부터 앞에 통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가족구성원수인 4인 가족이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 요구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분가로 인해 주택은 부부에 자녀를 기준으로 한 배치와 평면이 일반적이나마 제주사회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노부모가 경제력을 잃었을 때 또는 자녀가 혼인을 하고 독립하기 전의 일시적 생활 등의 한집에 살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기존 외거리 평면에 노부모 또 분가 가능한 자녀에 대한 평면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 [표 4-4] 부부+자녀가 거주하는 기본 주택에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 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부분의 건물 배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A동은 부부 또는 자녀(부모 의존시기)가 거주하는 공간이며 B동은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부부(부모와 독립)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증축 방법으로는 기존 건물 A의 바로 옆에 수평으로 B를 배치하는 방법과 A동과 B동을 다른 축에 위치시켜(ㄱ자형, 二字形) 복도를 통해 연결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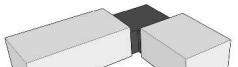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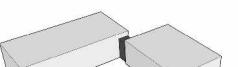
[표 4-4] 건물 배치 방법



2) 건물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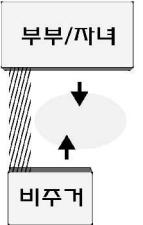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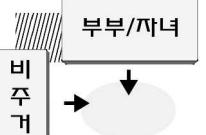
건물 연결은 앞에서 말한 A동과 B동을 하나의 건물로 디자인하여 설계하는 방법과 A동과 B동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복도 또는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때 각각 대지 및 환경 상황에 따라 디자인적 요소를 결정한다. 특히 건물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고 있어서 연결 복도 및 연결공간을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 기존에 제주 민가의 별동배치의 디자인적 요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결 부분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재질의 변화를 주면서 외관적으로 별동 배치의 분위기가 드러나게 디자인 할 수 있다. [표 4-5]는 이러한 방법의 도식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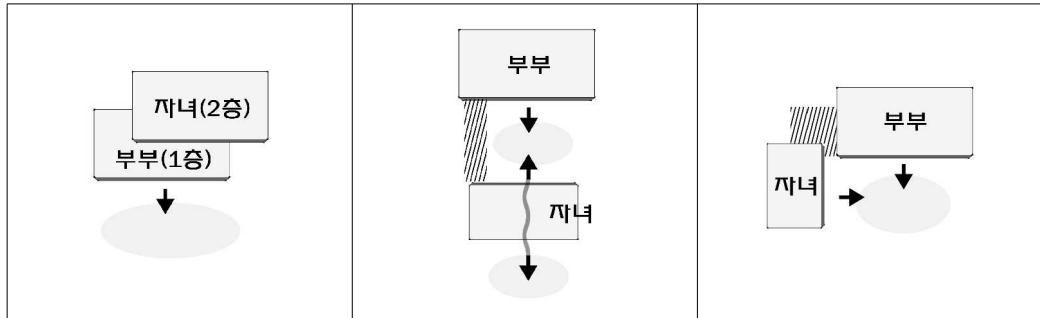
[표 4-5] 건물 연결 방법

	단일형	분리형	
		공간 연결식	복도 연결식
一자형	A B	A B	A B
			
ㄱ자형	A B	A B	A B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세대(부부+자녀{부모 의존시기})와 2세대(1세대 +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부부)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 배치의 현대적 방법의 예는 다음 [표 4-6], [표 4-7]과 같다.

[표 4-6] 1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1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한거리	마주앉은 두거리	모로앉은 두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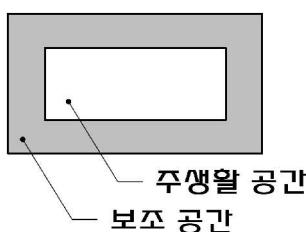
[표 4-7] 2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2세대 거주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한거리집	마주앉은 두거리집	모로앉은 두거리집	세거리집

4.2 평면 구성 요소의 조합 가능성

4.2.1 평면 특성의 적용 가능성

1) 이중외피 구조



[그림 4-1] 이중외피 구조

제주 민가 평면의 특성은 주생활공간은 집안의 중심에 위치하며 주생활 공간을 보조해 주는 공간을 최대한 외피에 인접하게 배치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극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생활 공간 중 주로 취침, 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방과 거실은 집안의 중심에 최대한 위치 시킨다. 주생활 공간 중 부엌의 경우는 외부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부엌의 환기를 고려했을 때 외벽에 면해야 한다. 따라서 부엌은 중심공간에서 이동하기 쉽고 외피에 접하도록 위치시킨다.

다른 보조공간들은 각 실의 특성에 맞게 위치시킬 수 있으나 가능한 외벽에 접하도록 하여 열적 완충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치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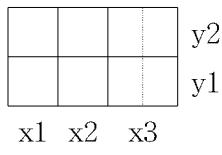
2) 독립생활 공간(별도 정지)

제주의 경우 한 울타리 안에 건물이 위치함에도 각각의 부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적 독립이된 분가형식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4.1.2장에서 다룬 배치에서 B동의 경우에도 노부부나 분가 전 자녀 부부를 위한 부엌과 거실이 따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3) 평면 형태

평면은 기본적으로 겹집구조로 y1, y2축을 기본으로 하고 x축으로 확장하는 평면 구성방식을 보여준다.

통로 없이 실과 실 단위간의 결합 형식은 제주 민가에서 집안의 대소사시를 대비한



공간 형태로 작은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의 공간을 보여준다. 제주 민가평면은 상방에서 각 실로 바로 진입 가능한 경우로 거실이라는 공간 특성 보다는 복도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마루의 개념이 강한 것이다.

[그림 4-2] 평면형태 현대 주택에서는 거실의 경우 하나의 실 공간으로 쇼파 등의 가구나 티비 등의 멀티기기 설치를 위한 문이 없는 벽면이 요구되어 지며 이를 위한 복도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현대 주택에의 적용에 있어서 겹집형태를 유지하면서 x축 확장으로 확장을 하는 방법을 유지하면서 일부 필요에 의해 복도 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4.2.2 평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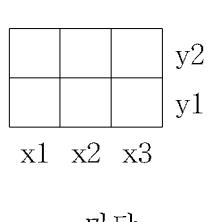
1) 부부, 자녀 주거공간의 평면 구성

부부의 독립성과 자녀의 유아기, 대학 교육기, 성년기 등의 자녀공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부공간(AA), 공용공간(Pu), 자녀공간(Aa)으로 분리하여 평면 구성한다.

[표 4-8] 부부 주거공간의 평면구성

$$A = AA + Pu + Aa$$

각 실의 설계 방법은 다음의 설계 지침을 따른다.



- ① 평면의 구성은 제주 민가의 평면 구성방식으로 겹집형태를 취한다.
- ② 마당에서 진입으로 현관(E)는 y1축에 위치 시킨다.
- ③ 부엌(K)이 외부에서 진입 가능하도록 현관(E) - 부엌(K)을 인접시킨다.
- ④ 현관(E) - 부엌(K)을 인접시키지 못할 경우 부엌(K)는

[그림 4-3] 평면구성

x3축, 예 위치하여 외부출구가 있는 부엌(K/E) 형식으로 한다.

- ⑤ 전통적인 평면구성에 따라 거실(L)은 x축에 전, 후면이 면하도록 위치시킨다.
- ⑥ 안방(Rm), 거실(L)은 마당에 면하도록 y1축에 위치시킨다.
- ⑦ 평면의 확장시 y축은 유지하면서 x축을 확장한다.
- ⑧ 안방과 방은 가능한 멀리 배치시킨다.

[표 4-9] 평면 배치 가능성

부부공간 AA	Rm	Pu, Aa	W Rm	Pu, Aa	H Rm W	Pu, Aa
공용공간 Pu	AA	L	K Aa	AA	K L	Aa
자녀공간 Aa	AA	Pu	R R	AA	Pu	R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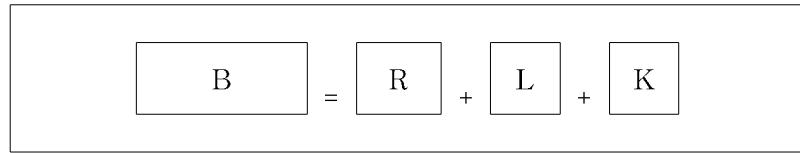
2)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 부부 주거공간의 평면 구성

거주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L)과 부엌(K) 공간을 평면에 구성한다.

노부모가 완전 분가하거나 자녀가 분가할 경우는 작업실 또는 손님방등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면적을 소형화 하는 등 관리가 쉽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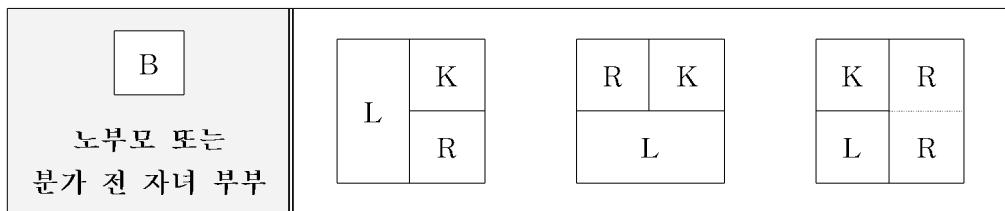
평면구성은 방, 거실, 부엌을 기본 형태로 하며 건물 배치할 때에는 향과 대지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표 4-10]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부부 주거공간의 평면구성



노부모 또는 분가 전 자녀부부 주거공간의 평면 배치 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4-11]와 같다. 기본 실은 [표 4-10]에서 나와 있듯이 방 + 거실 + 부엌을 기본으로 하고 민가 특성인 겹집형태로 구성한 것으로 거주자의 요구에 따라 방과 거실의 규모를 조절하여 방의 개수를 조절한다.

[표 4-11] 평면 배치 가능성



4.3 실 단위별 적용 요소의 조합 가능성

4.3.1 실 단위별 특성의 적용 가능성

1) 공간의 특성

일반적인 구들(방), 산방(거실), 정지(부엌) 공간은 육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주택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실의 특성은 현대 주택 요구사항에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기존의 실 특성이 그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주 민가의 특성이라고 독특하게 따로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제주 민가의 실 단위별 적용 가능한 요소를 살펴보면 육지에서 가지지 않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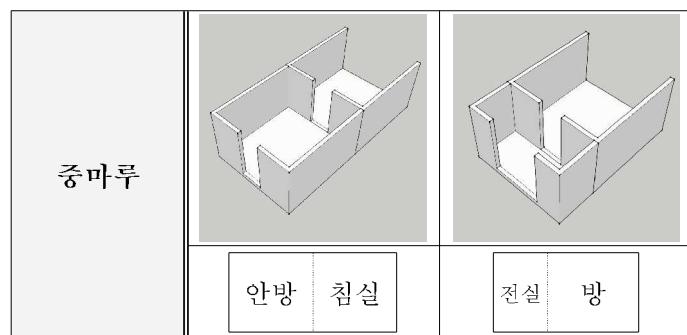
중마루, 고랑캐, 장방, 굴목, 챗방은 구들(방), 산방(거실), 정지(부엌) 공간의 보조공

간이기는 하나 제주 민가 평면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으로 현대적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① 중마루

중마루는 구들과 상방 사이에 위치하는 공간으로 상방의 마루 공간이 방 안쪽까지 확대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공간은 상방의 공적 공간과 구들의 사적공간 사이에서 준 공적, 사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마루를 통로의 공간으로 본다면 방에 들어가기 전 타 공간과의 완충 공간으로서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다. 반면에 하나의 실 단위로 본다면 구들의 사적공간 앞에 위치한 준 사적공간으로 구들을 완전한 부부만의 공간인 침실로 볼 수 있으며 중마루는 가족단란, 접객, 간단한 가사 등의 다목적 공간이지만 상방(거실)보다 좀 더 밀실한 공간인 안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12] 중마루의 적용 가능성



② 고랑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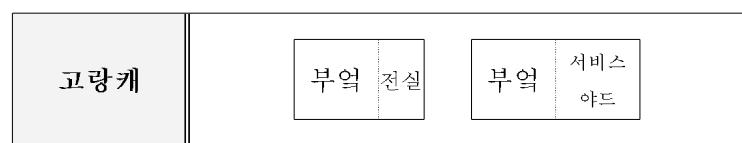
정지(부엌) 출구 앞벽을 측벽이 연장되면서 감싸듯 만들어진 공간으로 구석에 정지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보관 장소로 이용되는 공간이다. 일종의 수납공간 역할을 하지 만 정지의 출입구로 바람이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바람막이 벽 역할도 한다.

제주 주택의 설계에서 아직까지도 부엌현관이 요구 되고 있다. 부엌현관은 여성들의 살림살이를 위한 출구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인 경우에도 이용한다. 외부에서의 작업 이후 몸 상태로 인해 메인 현관의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해 메인 현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고랑캐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여성과 남성의 외부 활동의 보조공간으로서 작업 도구나 의상의 보관 공간 또는 간단한 세면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부엌 현관을 열었을 경우 바람의 영향을 차단시켜 주며 부엌 환경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완충공간 역할을 할 것이다.

[표 4-13] 고랑캐의 적용 가능성



③ 장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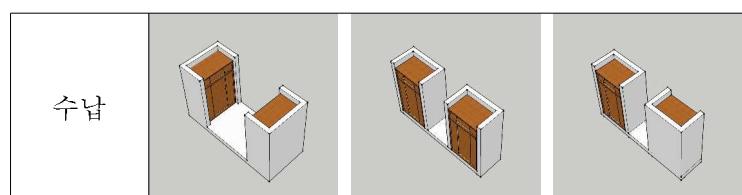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수납은 방안에 가구를 설치하여 사용한다. 하지만 장방인 경우는 불밖이장 형식으로 민가 구조체에 매립되어 있는 형태로 상방(거실)에서 안뒤(뒷마당)으로 나가는 문 양쪽에 위치하고 있다. 주생활 공간인 상방에서의 수납 기능과 함께 상방 뒷문 양옆에 위치하여 외기로부터 냉기를 차단시켜주는 열적 완충공간역할을 한다.

장방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장방의 수납 역할보다는 실과 실로 구성된 평면에서 사용이 안 되어지는 죽은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대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납공간을 구조체(벽체)와 함께 구성함으로서 디자인 마감 디테일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로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벽을 장방과 같이 이중벽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벽은 외부로 부터의 열기, 한기를 차단

[표 4-14] 장방의 적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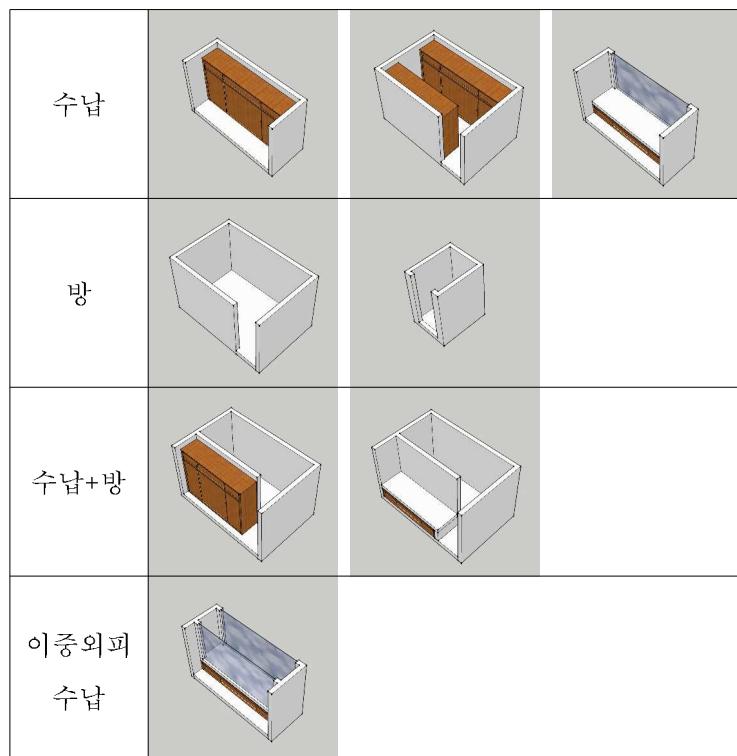
해 주는 이중외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에어컨 또는 거실 청소 물품들을 보관 할 수 있는 수납용품으로 쓰일 수 있다.

④ 굴목

개별난방이라는 독특한 난방의 방법에 의해 각 구들 옆에 구성된 공간으로 전통 민가를 보수하고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서는 주로 창고 또는 보일러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굴목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은 실 배치에 있어서 주 생활공간이 아닌 보조공간의 배치를 건물의 외벽에 붙여서 배치함으로서 열적 완충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또한 하부를 난방공간 상부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평면에서의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수직적인 측면에서 공간 활용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안방이나 방에 창을 설치할 경우 하부에 수납공간을 두고 상부에 수납공간만큼의 공간 폭을 유지하면서 이중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표 4-15] 굴목의 적용 가능성



⑤ 챗방

민가의 상방(거실)과 정지(부엌)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루방으로 식당 및 주방 보조공간으로 사용되어진다.

현대적 적용 가능성으로는 거실이나 부엌 옆에 가족실 또는 식당 공간으로 하되 대소사시 공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공간의 보조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도록 평면 구성을 해야할 것이다. 이때 공간의 확장 방법으로는 미닫이문의 사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4.3.2 실 구성

1) 안방

① 구성요소 및 배치 방법

[표 4-16] 안방의 구성요소

기호	구성 요소	
	설명(전통요소)	기호
Rm	방 (구들)	R
	테라스, 뒷마루 (낭간)	T
	전실 (중마루)	Re
	서비스 룸 - 화장실, 드레스 룸 등 (콜목)	Rs

- a. 침실은 취침만을 위한 공간으로 최소화 한다.
- b. 드레스 룸(DR)은 최대한 외기에 면해서 배치한다.
- c. 실 배치는 전통공간 배치 방법을 따른다.
- d. 방(R)은 마당을 향하여 면하도록 한다.

② 안방의 조합 가능성

안방의 조합은 [표 4-16]에 나와 있는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설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방의 경우 부부만을 위한 화장실이나 드레스 룸 등의 부속공간이 같이 제공되므로 위 요소들 조합에서 안방의 기본적인 요소의 조합은 방(R) + 서비스 룸(Rs)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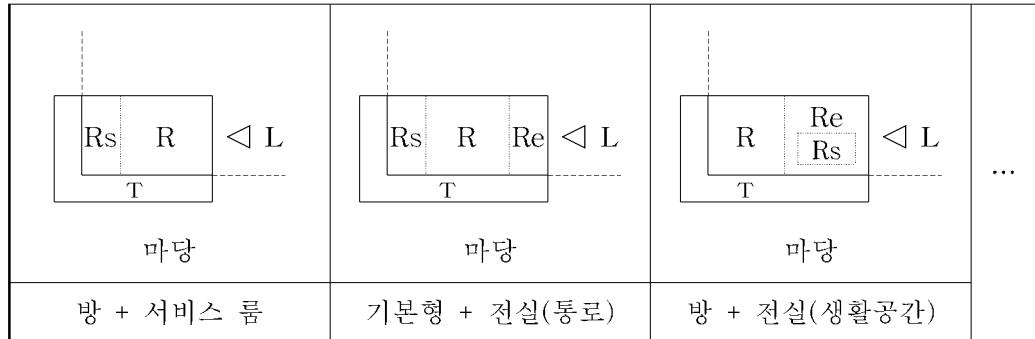
될 것이다.

방(R) + 서비스 룸(Rs)의 기본 형태에서 다른 공간의 조합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각 실이 제공하는 공간적 특성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 공간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전실(Re)을 설치할 경우 서비스 룸(Rs)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전실에서 제공할 것이지 아닌지에 대하여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실 배치해야 할 것이다.

테라스 또는 토마루의 경우는 안방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을 고려하여 배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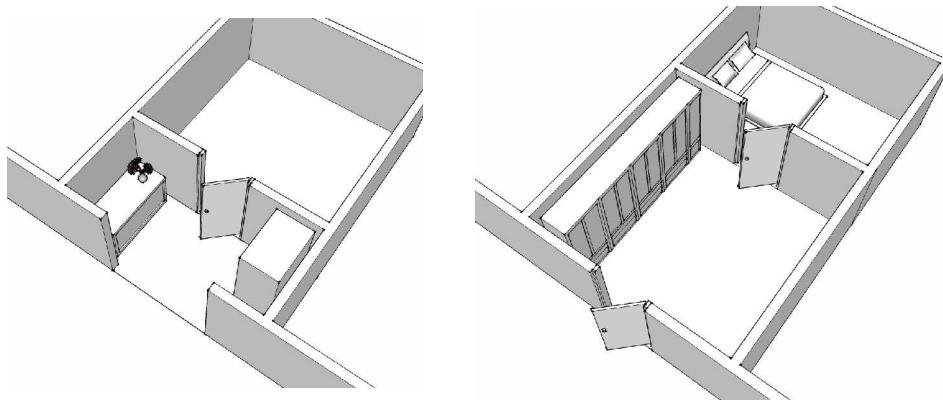
[표 4-17] 안방 구성의 조합 가능성



③ 적용 이미지

[그림 4-7]은 민가가 가지는 중마루 성격의 공간인 전실을 방 앞에 적용한 이미지다. 첫 번째 이미지는 안방앞 전실을 하나의 통로로 사용한 것으로 화분, 액자 등을 설치하여 거실과 안방의 이동에 있어서 전이 공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수납가구를 설치하여 거실과 안방의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전실을 하나의 단위 공간으로 방 크기의 규모로 안방 앞에 설치한 것으로 기존에 방은 완전히 private 한 공간인 침실로 사용하고 새로 설치된 전실은 semi-public, private 한 안방 공간으로 사용한다.

[그림 4-8]은 굴뚝이 가지는 이중 외피의 특성을 적용한 이미지다. 첫 번째 이미지는 굴뚝이 가지는 수납 기능과 열적 완충공간 특성을 적용한 것으로 하부에 수납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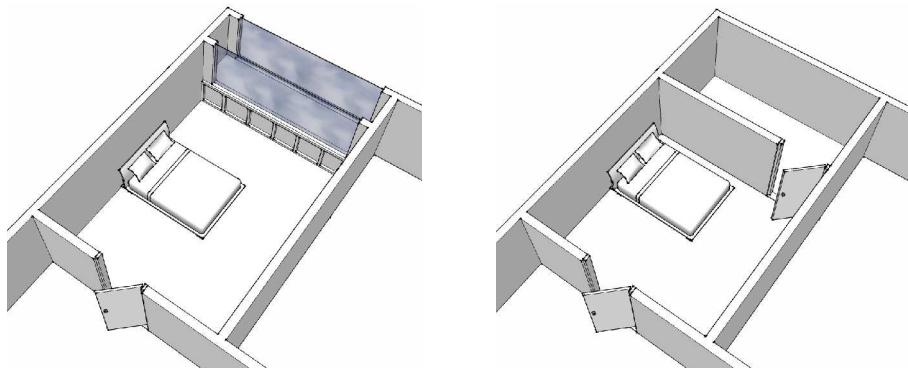


방(R) + 전이공간, 통로, 수납(Re)

안방(R) + 침실(Re[Rs])

[그림 4-4] 전실 적용 이미지

을 상부에는 이중창을 설치한 것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굴뚝을 하나의 실 단위로 적용하여 건물의 외벽에 접하도록 위치시킨 것으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완충공간을 하는 것으로 화장실, 드레스 룸, 서재 등의 공간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수납(하부) + 이중창(상부)

화장실, 드레스 룸, 서재 등(Rs)의
공간으로 사용

[그림 4-5] 이중외피 적용 이미지

2) 거실

① 구성요소 및 배치 방법

[표 4-18] 거실의 구성요소

기호	구성 요소	
	설명(전통요소)	기호
L	거실 (상방)	L
	테라스, 뒷마루(낭간)	T
	현관	E

- a. 설계 조건에 따라 전면 또는 전,후 면을 외부(마당)에 면하여 배치한다.
- b. 외부면과 접하는 부분에 테라스 또는 뒷마루를 필요에 따라 배치한다.
- c. 현관은 외부환경과 거실, 테라스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거실의 조합 가능성

안방의 조합은 [표 4-18]에 나와 있는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설계 될 수 있다. 테라스 또는 뒷마루는 거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 필요에 따라 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현관은 대문, 주차장, 마당의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부엌

① 구성요소 및 배치 방법

[표 4-19] 부엌의 구성요소

기호	구성 요소	
	설명(전통요소)	기호
K	부엌(정지)	K
	다용도실(정지)	U

- a. 부엌은 하면은 외부와 접하도록 배치한다.
- b. 외부에서 부엌으로 출입 가능한 부엌 출입구를 만들고 출입구 앞에는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작업 보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실을 배치한다.

	식당(챗방)	D
	부엌전실	Ke
	부엌 출입구	K/E
	보일러실(굴목)	Bo

- c. 보일러실은 부엌과 외벽사이에 위치시키고 부엌 출입구와 다용도실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리가 쉽도록 배치한다.
- d. 식당과 다용도실은 부엌의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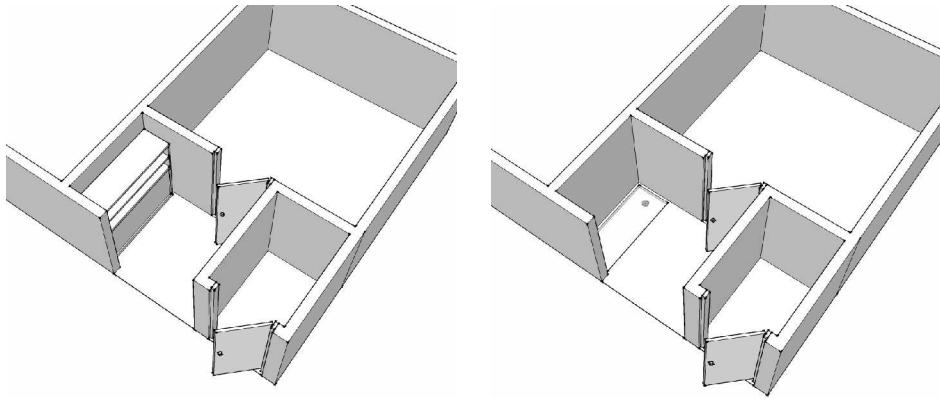
② 부엌의 조합 가능성

부엌의 조합은 [표 4-19]에 나와 있는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설계 될 수 있다. 부엌 출입구는 제주도의 생활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현재에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거실과 부엌, 외부와의 동선관계를 잘 고려하여 앞에 구성요소를 조합하도록 한다. 식당인 경우는 거실과 분리형인지 통합형인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 분리형인 경우 미닫이문 등을 이용하여 집안의 대소사시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 가능토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③ 적용 이미지

[그림 4-9]는 정지(부엌)앞에 고랑캐가 가지고 있는 바람의 차단, 수납의 공간을 현대 주택에 적용한 이미지다. 부엌이나 다용도실의 문을 바로 외부로 할 경우 비바람이 바로 안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문을 열고 작업 시 부엌 내부 활동이 바로 외부로 노출된다. 따라서 전실을 만들어 줌으로서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내부 활동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은 외부 작업 후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현관으로의 출입이 불편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의 또 다른 출입구로서 전실에 수납 및 수도 설비를 설치하여 지원가능하다.



바람, 시선의 차단, 수납

바람, 시선의 차단, 세면

[그림 4-6] 전실 적용 이미지

4.4 건축 의장의 조합 가능성

4.4.1 지붕

1) 형태의 조합 가능성

제주 주택에 민가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지붕의 경우는 앞에서 다룬바와 전통민가의 특성을 재해석하여 반영한 주택의 지붕을 참고하고 응용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다룬 지붕의 형태는 현재 크게 곡선형 지붕, 우진각 지붕, 박공지붕 3가지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붕의 적용은 평면의 형태 및 주택의 층고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주거단지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지붕을 선택하도록 한다.

처마의 경우는 또한 지붕의 형태와 주위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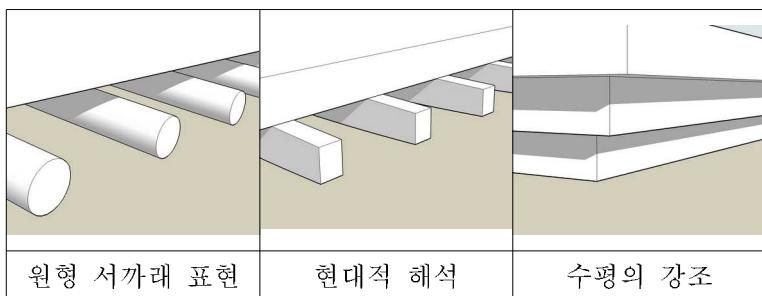
[표 4-20]은 앞에서 다룬 지붕의 형태를 곡선형 직선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각의 지붕의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지붕형태는 주택의 평면에 맞춰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겹치거나 반복하여 사용한다.

[표 4-21]은 지붕 처마에 대한 디자인으로 건물의 입면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

[표 4-20] 지붕의 적용 가능성

곡선의 강조				
	기본 지붕형태	곡선의 강조	원형 지붕	원형지붕 조합형
직선의 강조				
	우진각지붕	우진각 + 곡선	박공지붕 조합형	박공지붕

[표 4-21] 처마의 적용 가능성



여 적용토록 한다. 서
까래는 재료를 나무로
하여 전통 그대로 반
영 할 수 있는 반면
서까래의 모양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하여 주
택 특색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

2) 재료의 조합 가능성

재료 또한 전통적인 재료 그대로 현대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현대적으로 쓰이는 재료는 상당히 다양하므로 지붕의 형태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4-22]는 지붕의 재료를 전통적 재료와 현대적 재료로 나누어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 재료에서 새는 현재 공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매년 시공을 해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통 민가의 보존차원에서만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와는 현대 주택에도 적용 가능하다. 붉은송이인 경우 전통적으로 지붕에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표 4-22] 재료의 적용 가능성

전통 요소				
	새	기와	붉은송이	플라스틱 벗짚
현대 요소				
	강판, 티타늄	플라스틱기와	아스팔트슁글	지붕녹화

제주도의 자원으로 기존에 지붕을 재해석하여 민가의 특성을 반영한 주택에 많이 쓰인 것으로 제주의 전통자원이라는 차원에서 전통 요소에 포함하였다. 플라스틱 벗짚은 전통적 재료인 새(짚)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현대 건물에 적용하고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새(짚)가 가지는 색상과 형태를 살려서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일부 민가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한 건물에만 적용 가능할 것이다. 현대 지붕 요소는 현대 많이 사용되어지는 강판, 티타늄, 플라스틱 기와, 아스팔트슁글에 대한 재료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주택 설계를 할 때 주택의 특성에 맞게 사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녹화 지붕은 현재 친환경 건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만 전통민가에서 자연의 재료를 지붕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4.4.2 입면

1) 형태의 조합 가능성



[그림 4-7] 민가 입면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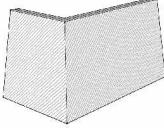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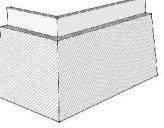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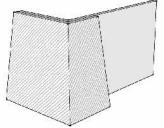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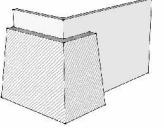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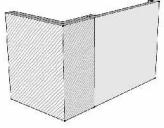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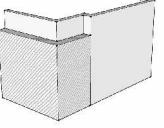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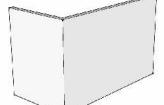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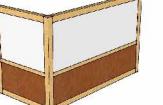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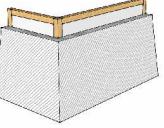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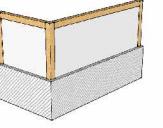
민가 입면의 구성은 수평적인 선들이 전체적으로 강조되면서 수직선이 조합되어 있다. 입면의 중심부는 수평과 수직으로만 구성된 직선적 요소로 이루어진 반면 주택 좌측과 우측면은 석 벽으로 구성되어 제주 자연석의 불규칙한 선들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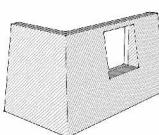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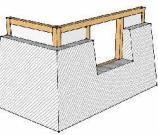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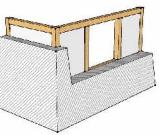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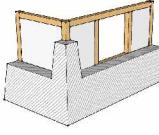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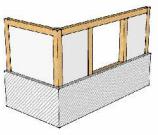
이러한 구성은 입면이 중심 부는 일반적인 전통가옥과 같이

목조로 된 주택구성으로 되어 있고 양 측면은 제주도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제주석에 의한 석벽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면은 석벽으로 구성된 벽과 가구식으로 구성된 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석벽 부분은 민가에 따라서 전체가 석벽으로 된 부분이 있고 기존의 벽체와 같이 구성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현대 제주 주택에도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다.

[표 4-23]은 제주민가의 양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석벽과 벽체의 디자인 가능성을 살펴본 예이다. 특히 석벽만 사용하기보다는 석벽과 벽체가 이루는 선의 요소를 적용하여서 디자인에 활용한다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어질 것이라 본다. 벽에는 민가 전통의 재료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같이 적용된다면 더욱 다양한 입면을 보여줄 것이라 본다.

[표 4-23] 입면의 적용 가능성

전통공간 특성	현대적 적용법	대안	
			
제주민가 의 석벽을 적용	• 벽과 석벽을 다른 재료를 통해서 구분하 고 디자인 요 소로 활용		
			
가구구조	• 흙, 몰탈을 사 용하여 평탄한 면 또는 가구 구조의 의장을 표현		 
석벽 + 가구구조	• 석재의 질감과 가구구조의 수 평적 요소를 같이 사용		 

입면 + 창	석재의 질감과 가구구조의 수 평적 요소를 같이 사용			
				

2) 재료의 조합 가능성

흙과 돌의 거칠고 투박한 느낌은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토양이나 석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건축 내, 외장재로 반영하여 표현하며 표현 방법에 따라 가공하여 사용 한다. [표 4-24]는 제주석(현무암)을 자연그대로 또는 가공하여 건물의 현재 건물의 벽체에 사용되어진 실제적 사례이다.

[표 4-24] 제주석 재료의 적용 가능성

전통공간 특성	현대적 적용법	사례
자연재료	재료의 고유성질을 그대로 표현	  
자연재료 + 몰탈	석재 재료 고유성 질을 그대로 표현 하며 접합부를 강 조하여 선적요소를 강조	  

현무암 가공 붙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를 가공하여 재료를 절약하는 동시에 현무암의 질감을 표현 	
현무암 + 몰탈 혹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벽에 현무암을 부분적으로 시공 몰탈의 거친 질감을 사용하기 위해 혹두기 등을 적용 	

식물, 목재는 살아있는 자연적 요소로서 실내공간에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 넣어 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목재 및 흙 재료는 자연의 형태, 색, 텍스처를 살리면서 미려함과 공기정화, 채광 조절 등의 기능을 갖는다.

[표 4-25] 목재 재료의 적용 가능성

전통공간 특성	현대적 적용법	사례		
자연재료 - 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고유성질을 그대로 표현 흙을 벽돌화 하여 조적 			
자연재료 - 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의 고유성질을 그대로 표현 흙을 벽돌화 하여 조적 			

현대주택에서 건물 외관의 재료는 상당히 다양하다. 따라서 앞에서 다룬 제주 민가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현대주택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주택의 디자인 특성에 맞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석은 제주전통민가의 의장적 표현을 적용하기에 쉽고 효과가 뛰어난 방법이다. 하지만 제주석이 가지는 색상이나 질감은 개성이 상당히 강하므로 적용에 있어서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통해 다른 현대적 재료와 조합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나무재료는 민가에서 외부보다는 실내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이다. 하지만 현재는 마무의 다양한 가공을 통해 외부에도 많이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민가에서 외부에 보이는 처마, 기둥, 텃마루 등의 나무재료가 가지는 색상 질감 또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현대주택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8] 입면 적용의 예시

[그림 4-8]은 기존의 전통민가에 현대적 재료를 적용한 예시이다. 그림의 우측은 기존의 전통 민가이며 좌측은 민가에 현대 재료를 적용한 모습이다. 지붕에는 아스팔트슁글을 석벽에는 제주석을 가공하여 커싱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제5장 요소 조합을 이용한 평면 계획

5.1 외거리형 평면 계획

앞에 통계청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평수는 19~29평형이지만 그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신축하는 주택에 있어서는 29~39평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의 수 또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방 3개짜리 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방 4개, 5개짜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의 1동형 평면계획은 20평형대, 30평형대로 나누고 방의 개수는 3개, 4개로 나누어서 계획을 한다. [표 5-1]은 평형에 따른 1세대 조합 설계 개념도로서 건물실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크기 및 실 단위별 연결방법은 건축환경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될 수 있다.

[표 5-1] 평형에 따른 1세대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부부 방수	자녀 방수	19~29평 대	29~39평 대
2	1		
1	2		
2	2		

5.1 두거리형 평면 계획

여기에서 말하는 두거리형이란 외거리와 증축부분으로 이루어진 부분으로 개념상 2동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한다. 1세대 주거공간에 노부부 또는 분가전 자녀 부부의 임시 주거 공간이 추가되는 형태로 1세대에서 방, 거실, 부엌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39~49평형 이상 되는 평형은 전체적으로 40%에 해당되며 서서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2동형 평면계획은 증축되는 부분을 10평형으로 보고 기존의 평형에 더해 30평형, 40평형대로 방수는 4개, 5개로 나누어 계획을 한다.

2세대 배치인 경우 세대간 연결 방법은 단일형, 분리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분리형은 복도형, 공간형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연결방법 3가지에 의한 주거 공간의 배치도 나누어 계획한다.

1세대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에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의 부부가 거주하는 추가되는 형태이다. 따라서 3장에서 다룬 노부부 또는 분가 전 자녀 부부의 평면 배치 계획 개념에서 적용 가능한 배치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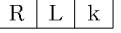
적용 가능한 형태는 3가지로 $\begin{array}{|c|c|}\hline L & k \\ \hline R & R \\ \hline\end{array}$, $\begin{array}{|c|c|}\hline R & k \\ \hline L & L \\ \hline\end{array}$, $\begin{array}{|c|c|}\hline k & R \\ \hline L & R \\ \hline\end{array}$ 가 있으나 $\begin{array}{|c|c|}\hline R & k \\ \hline L & L \\ \hline\end{array}$ 인 경우 동향, 남

향일 경우 방(R)이 향에 문제가 생기므로 $\begin{array}{|c|c|}\hline L & k \\ \hline R & R \\ \hline\end{array}$, $\begin{array}{|c|c|}\hline k & R \\ \hline L & R \\ \hline\end{array}$ 이 적용 가능하며 적용한 개념도는 [표 5-2]와 같다. 증축되는 부분을 기존의 건물에 앞에서 다룬 배치 형태에 따라 대지현황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일자형 또는 ㄱ자형, ㄴ자형으로 배치시킨다. 또한 증축되는 부분에서의 부엌은 기존 기존건물의 부엌과 다르게 간단한 조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한다. 현관은 상황에 따라 각 동별 개인현관을 두거나 두동 사이 연결부위에 현관을 두도록 한다.

[표 5-2] 평형에 따른 2세대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1세대 방수	2세대 방수	29~39평 대	39~49평 대
3	1		
3	2		
3	1		
3	2		
4	1		
4	2		

중축부분을 기존건물에 그자형으로 배치할 경우 1세대와 2세대 건물 간에 연결 방법은 동선을 고려했을 때 1세대 거실에서 2세대 거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현관은 건물을 연결해주는 복도(H)의 중심에 하나의 현관을 두고 양쪽 건물현관으로 사용가능하다. 한편 완전한 독립적 생활을 원할 경우 각 동별 현관을 따로 선택할 수 있다. [표 5-3]는 복도의 중심에 하나의 현관을 이용한 하나의 예이다. 또한 중축부분의 거실은 기존건물과 함께 마당을 향한 구심적 배치가 되어야 하고 동시에 향을 고려되어야 하므로 거실은 양끝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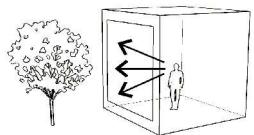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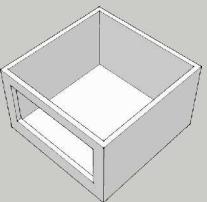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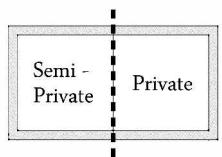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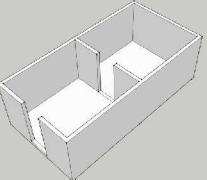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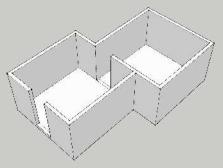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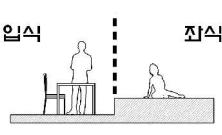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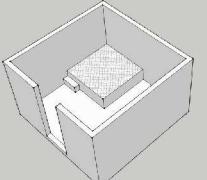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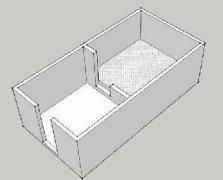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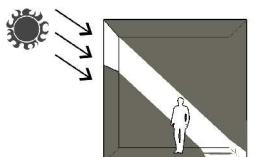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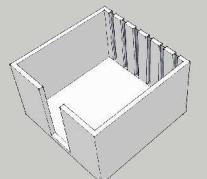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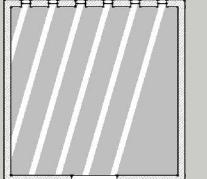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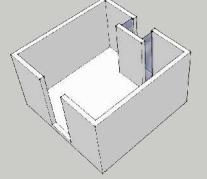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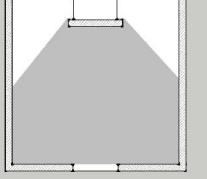
二형 배치인 향을 고려할 경우 중축부분은 의 겹집형태가 아니라  형태로 一자형으로도 고려되어질 수가 있다.

[표 5-3] 2세대 二형 배치 조합 설계 계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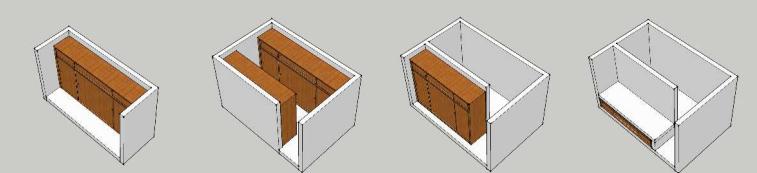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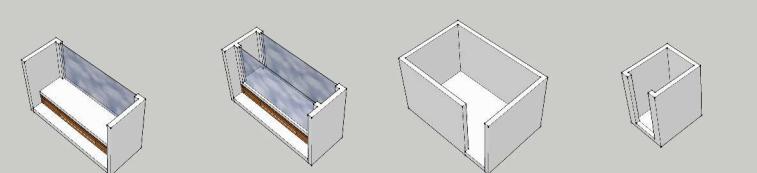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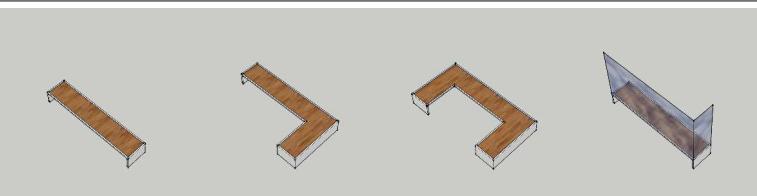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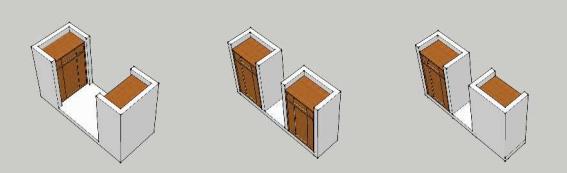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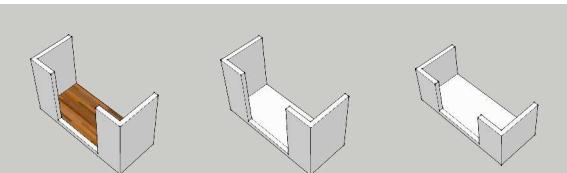
1세대 방수	2세대 방수	39~49평 대	
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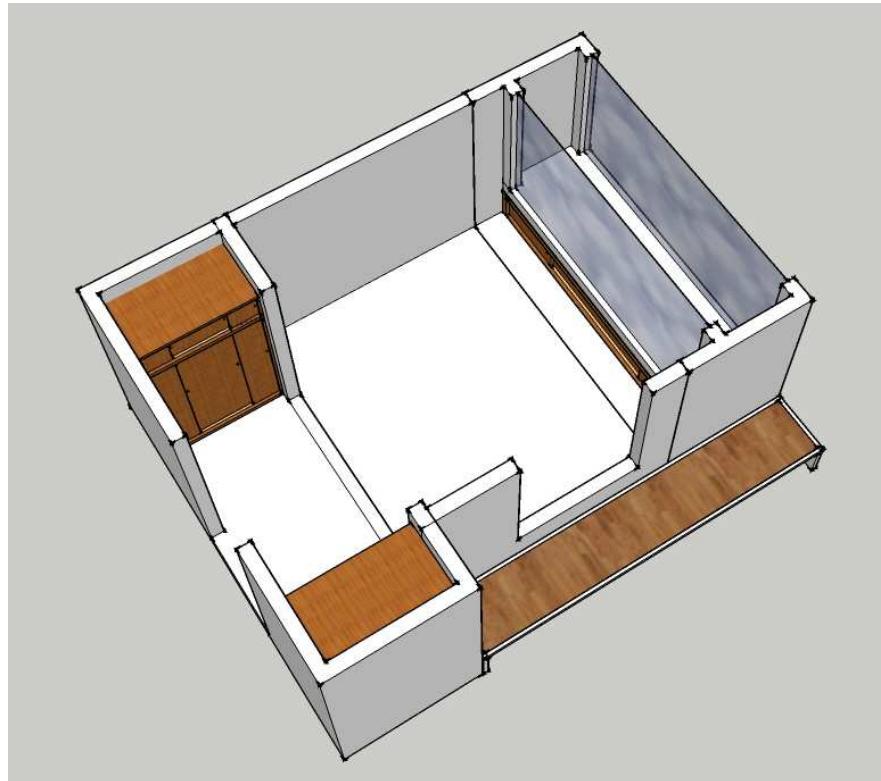
배치의 특성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평면계획을 일차적으로 결정한 후에 각 실을 평면구성의 특성에 맞게 요소들을 조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음 [표 5-4]는 앞에서 다룬 구들(방)의 개념에 따른 대안이며 [표 5-5]는 굴뚝, 헛마루, 장방, 중마루의 대안이다. 각각의 요소들은 평면계획의 R(방)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조합 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다.

[표 5-4] 방 적용의 대안

전통공간 특성	개념 - 도식화	대안	
마당으로 열린 공간			
사적 생활 공간			
좌식 (온돌공간)			
제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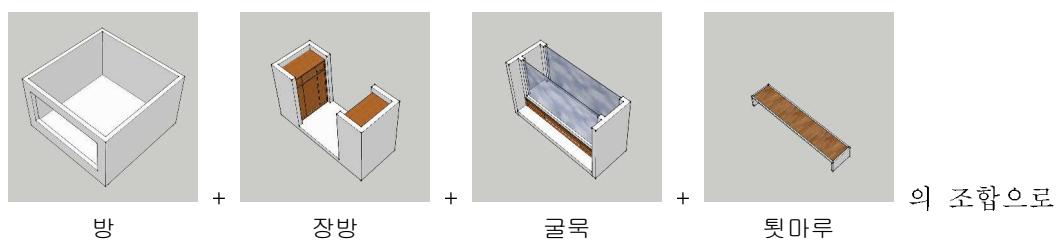
[표 5-5] 기타 요소의 대안

전통공간 특성	대안
굴목	 
툇마루	
장방	
중마루	



[그림 5-1] 안방 조합의 사례

[그림 5-1]은 앞에서 방과 기타요소(굴목, 톳마루, 장방, 중마루)의 대안 사례



이루어진 안방으로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 안방의 입구에는 장방을 적용하여 가구방을 만들어 수납이 가능하고 전실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가에서 굴목이 놓이는 자리에는 이중외피형태의 이중창호로 통해 열적 완충 공간을 만들었고 창호 밑은 수납이 가능한 가구를 두었다. 굴목의 난방과 수납에 대한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툇마루는 기본적인 형태로 적용하였다. 이처럼 민가의 특성에서 나온 각각의 요소를 조합하여 안방을 만들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안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실, 주방에 각각의 요소를 적용하여 계획평면에 적용한다면 제주민가 특성요소를 적용한 제주민가 주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논문은 근대화로 인해 현재 주택으로서 거의 자리를 잃은 지 오래된 제주 민가를 재해석하여 현대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즉 제주민가를 구성하고 있는 건축 특성 중 현대 주택에 적용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각 요소들을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현대 주택에 적용함으로서 근대화로 인해 잃어버린 제주의 고유한 지역성을 품고 있는 주택을 만드는 방법을 찾는데 있는 것이다.

민가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방법으로 민가의 특성을 배치, 평면, 실 단위, 의장 요소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로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요소화 시킨다. 현대 주택이 위치할 대지 상황과 자연환경, 거주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요소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를 추출하고 조합함으로서 현대 주택을 계획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역성이 반영된 전통민가의 건축적 특성이 오늘의 현대 주택에 어떻게 반영되고 조합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진행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가 배치의 현대주택에의 적용 방법으로는 ‘一’자형, ‘ㄱ’자형이 가능하다.

민가의 배치는 자연환경 중에서 바람에 대한 영향을 가장 고려하여 배치된 형식이나 현대 주택에서는 기술적으로 바람에 대한 영향이 극복 가능하기에 바람 보다는 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二’자형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밖거리의 향이 불합리 하므로 주택설계는 외거리 형식인 ‘一’형으로 설계하여 규모를 확대하거나 ‘ㄱ’자 형으로 배치한다. ‘二’자형 배치로 인해 만들어지는 제주 민가 마당 구심적 형태는 필요에 따라서 작업실, 창고, 차고의 별동(목거리)을 ‘二’형태로 배치하거나 담장을 이용하여 마당을 구성해준다.

둘째, 민가의 겹집구조와 이중외피형태의 평면 구조는 상당히 근대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여 줄 수 있는 평면구조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 민가는 목재가 부족한

환경에서 바람에 순응하면서 적응된 틀과 규모를 가지고 있다. 고정되어 있는 틀과 규모 안에 필요한 공간을 구성했어야 되었기에 대청과 복도 역할을 하는 상방을 집의 중심에 두고 각 실을 배치하였으며 규모 이상의 공간이 필요할 경우 별동을 증축하였다. 실의 구성은 기존 전체 평면에서 건물 정면을 기준으로 3칸 또는 4칸으로 수평적으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진 공간을 1칸 또는 2칸으로 사용하였다. 현대 주택의 3-bay, 4-bay sys. 같이 시스템화 되어 있다. 1: 2 비율을 가지고 요철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직사각형 평면과 이중외피적인 공간 배치는 현대 주택에서 추구하는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측면에서 적용 가능하다.

셋째, 중심공간인 구들, 상방, 정지는 방, 거실, 부엌으로 기존 용도로 적용 가능하지만 중마루, 고팡, 굴목, 낭간, 장방, 챗방, 고랑캐는 실의 특성을 재해석하여 현대 주택에 적용 한다. 생활문화가 바뀜에 따라 필요한 공간도 변하게 된다. 고팡, 굴목, 낭간, 장방, 챗방, 고랑캐의 공간은 중심공간인 구들, 상방, 정지를 보조하는 공간으로 현대적으로도 방, 거실, 부엌을 보조해주는 공간으로 적용 가능하며 각 실의 배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열적 완충 공간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건물의 외벽과 접하도록 배치시킨다. 특히 중마루, 챗방, 고랑캐는 각 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는 전실 공간으로 현대 주택의 각 실과 조합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넷째, 외부에서 바로 진출입이 가능한 부엌현관을 만들어 준다. 정지는 외부공간의 연장공간으로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였다. 현대 주택에서도 주방기구의 설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부엌현관이 요구되고 있다. 부엌현관은 외부에서 직접 부엌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부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도 바로 외부로 배출이 가능하기에 주차장, 대문, 마당 등 외부 공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부엌현관 위치가 배치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붕은 형태적으로 차용, 응용하되 지구단위 전체의 외부경관을 고려하여 통일성 있는 형태를 취한다. 의장적 요소인 지붕은 주택 자체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지구단위의 외부경관을 형성하는 주된 요소가 되므로 전반적인 주택의 형태, 규모를 고려하여 적합한 지붕의 형태와 색상을 정하고 그에 알맞도록 지붕의 재료를 선택하도록 한다.

여섯째, 입면은 직설적 또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현대주택에 전통성을 표현한다. 민가는 자연재료인 돌, 흙을 그대로 사용하여 시공된 주택으로 입면에도 재료의 물성이 잘 나타나 있다. 민가는 구조 벽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에 의해 결과적으로 벽의 의장이 결정되지만 현대 주택은 일반적으로 구조와 의장을 따로 시공한다. 따라서 민가 입면의 현대적 적용에 있어서는 민가가 가지는 재료를 의장요소로서 외부에 직접 시공하여 직접적으로 연출하거나 재료의 특성과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여 상징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일곱째, 한 집안에 두 세대 이상 거주할 경우 세대 간 생활공간을 분리시켜 서로 독립된 생활이 가능토록 한다. 제주는 육지와는 다르게 문화적으로 장자도 분가를 한다. 따라서 한 울타리 안에서 두 세대가 거주할 경우에도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각 세대별 상방, 정지가 따로 배치된다. 현재 주택이 공급이 많아져서인지 분가를 할 경우 한 울타리 안에서 분가가 아니라 완전 독립된 주택으로 분가를 한다. 하지만 노부모가 경제적 능력을 잃었거나 자녀가 결혼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한 집안에 두 세대가 살아갈 경우를 고려 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두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할 경우 거실과 부엌을 따로 배치하되 중요도에 따라 규모를 달리하여 평면을 조합하도록 한다.

주택의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연환경, 자본, 주택을 살아갈 건축주, 건축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택이 결정되어 진다. 따라서 앞에서 제주민가의 요소들이 하나의 주택에 모두 적용되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제주에서 설계가 되는 주택에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각 요소를 조합하여 주택에 적용한다면 좀 더 제주도의 생활문화에 적합한 지역성 있는 주택으로 계획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 주거를 특성별로 나눠 분석한 요소를 어떻게 조합하여 현대 주택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방법의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므로 구체적인 설계 안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설계 대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연구가 종합될 때 제주 주택의 가치는 가치는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연구문헌

- 김진일, 최경숙, 연제진, 유춘수, “한옥의 건축의장 요소가 현대 주택 입면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6, n3, 1990
- 김근태, 이현수, 김정태, “유니트 조합에 의한 주택의 공간배치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v.14, n2, 1994
- 한성원 · 박정근 · 박철민, “현대건축에 나타나는 지역적 특성 사례에 관한 연구”, 첨단기술연구소논문집, v.17 n.1, 2006
- 한필원, 손명기, 이주옥, “전통한옥의 요소를 도입한 아파트 현관부 디자인 연구”, 대한건축학회집, v.25 n.2, 2009
-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양건, “제주지역 현대 단독 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양택훈, “제주도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김형남 “1920~1960년대 제주시 도시주택의 유형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동오 “근대 이후 제주도 건축에 표현된 지역성에 관한 연구 : 비 주거건축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이광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 이타미 준의 포도호텔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보고서

- 남제주군, 『성읍민속마을 종합정비계획』, 1994
-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전통주거 계획개념 및 설계요소에 관한 연구Ⅱ: 사례연구』, 1997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적 디자인 요소의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2002
- 대한주택공사,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단행본

- 로렌스 저, 손세욱 역, 『현대 주거계획론』, 대운출판, 2000.
- 김태일 저, 『제주 건축』,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태일 저, 『제주 도시건축을 이야기하다』,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김태일 외 공저, 『제주인의 삶과 주거공간』,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 제주도건축사회 ·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제주도 주거건축의 향토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건축사회, 1992

ABSTRACT

A Study on Design of House with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Vernacular House in Jeju Island

Jang, Chang Min

Dept. of Architectural E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Jeju Island is located at the southern end of korea and has the unique natural environment compared to land. However, the development of houses after modernization in Jeju Island has simply followed the type of land, even though it has the different facts on the field of geopolitics and social science.

Therefore, this study is about to find the different facts of old private houses and apply things to modern houses. After finding the architectural properties of vernacular houses in Jeju Island, reinterpret the styles and characters of vernacular houses and make a renewal which has innate geographic fact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cide whether the characters from vernacular houses could apply to modern houses in jeju island although recent houses in jeju island lost the considerable local facts.

The design of houses in Jeju Island specially have been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climate but the technology of modern architecture overcomes this climate environment. Thus the problem, how the fact of vernacular house possibly could use, would be considerable.

Recently, architects have tried many different methods for adapting the local traditionality in the modern houses from the vernacular houses. The local traditionality already becomes the main fact of the architectural methods. This kinds of the attempts could be showed in various way because architects have different perspective and taste about the reinterpreting of the traditional facts of the old houses. Thus this study tries to explain the placement, plan, existing unit and design element lather than interpret the concept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characters of vernacular houses are placement, plan, existing unit and design element.

Basically the houses in jeju Island is affected by wether rather than architectural design. But the latest architectural technology could overcome this wether problem, so how the traditional space and placement under wether in jeju island could apply to modern houses is the main problem. This study will show how the traditional facts from old houses could be utilized by separable ways.

The houses applied with the traditional facts show the validity of how the traditional design could be used in modern design. However to generalize the design elements is not easy because of architecture in many cases follows to social environment. In this study I think traditional houses in Jeju island has to be studied in various aspects to continue the successive architectural design and prove whether the traditional design could be used in modern architecture or not.

Key words : Jeju Island, ,Vernacular Houses, Modern House, Design